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직업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에서 드러난
보통교과의 위상과 역할

201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전공
박 나 실

직업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에서 드러난
보통교과의 위상과 역할

지도교수 소 경 희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전공

박 나 실

박나실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6월

위 원 장 _____(인)

부 위 원 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직업특성화고의 보통교과를 둘러싸고 있는 맥락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보통교과가 직업특성화고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고, 이 과정을 통해 드러난 직업특성화고의 보통교과 교육이 지니는 의미와 한계가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두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첫째, 직업특성화고의 보통교과를 둘러싸고 있는 맥락은 무엇인가?

둘째, 직업특성화고의 교육과정에서 보통교과는 편성과정과 실행과정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연구 결과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업특성화고의 보통교과를 둘러싸고 있는 학생, 교사, 학교의 맥락에서 두 가지 특징적인 부분을 각각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직업특성화고 학생의 맥락에서는 학생들의 진로가 취업 일변도로 흐르지 않았고, 오히려 학생들의 진로 선택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000년 중반 이후 국가의 재정적 지원과 관심으로 직업특성화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되어, 중학교 내신 성적 중상위권 학생들이 직업특성화고에 상당수 진학하였으나 여전히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이 많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교사의 맥락에서는 학교에 대한 교사들의 비애착적인 태도 즉 ‘떠나가고 싶어하는’ 태도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싶어하는’ 태도가 특징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통교과 교사들은 모범적인 학창시절을 보낸 그들의 배경으로 인해 직업특성화고에 대한 이해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았으며 학생들의 부정적인 학습 태도와 분위기에 대해 괴리감과 충격을 경험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직업교육을 수행하는 특수목적의 학교라는 점에서 직업특성화고는 취업률을 유난히 강조하는 특징을 찾아 볼 수 있었다. 더불어 직업특성화고 학교운영이 직업교육과 관련된 프로젝트나 교육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전문교과 교사들이 이를 전담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선 보통교과는 직업특성화고 내에서 두 가

지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통교과는 교육과정의 핵심부로부터 밀려나 주변적인 위치에 놓여 있었다. 또한 학교운영 과정에서 보통교과는 전문교과와의 연계성을 보이기 보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마치 ‘외딴 섬’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직업특성화고에서 보통교과는 수능준비 혹은 장기적인 삶을 위한 준비의 도구로 간주되고 있었다. 또 다른 역할로는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기초 혹은 보조적인 수준의 역할로 규정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상의 직업특성화고 보통교과의 세 가지 맥락적 특징 및 위상과 역할에 관한 연구 결과는, 직업특성화고의 보통교과 교육의 의미와 한계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직업특성화고의 직업교육이 직무훈련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학생들의 ‘장기적인 삶’을 위한 고민은 다소 간과되는 측면이 있다. 보편적인 삶을 위한 준비에 주목하는 보통교과는 이러한 직업교육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으며 교육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다. 그러나 보통교과 교육이 지니는 이와 같은 의미에도 불구하고 현재 직업특성화고에서 보통교과 교육은 그 위상과 역할을 살펴볼 때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세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직업특성화고 보통교과 교사들에게 ‘직업특성화고’의 특수 맥락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의 확장을 위해 직업특성화고와 관련된 정보와 교육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두 번째로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사이의 경계를 흐림으로써 양자 사이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직업교육에서 ‘직업’에 대한 재개념화가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가 지니는 의의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의 선행 연구물에서는 직업특성화고의 보통교과를 주변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반해, 이 연구는 이를 집중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직업특성화고 보통교과의 현재 상황을 학생, 교사, 학교의 맥락에서 다층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보통교과의 위상과 역할이 나타내는 특징을 드러내었다. 이 점은 직업특성화고의 보통교과 교육의 현재 좌표를 파악하게 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두 번째로는 직무위주의 직업교육이 주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직업특성화고의 현실 속에서 보통교과 교육을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학생들의 전생애적인 삶을 고민하며 인간의 보편적인 삶에 대해 다루는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직업교육에서의 보통교과교육의 가능성을 일면 엿볼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설문조사방법을 주로 활용하여 제한적인 결과를 도출하는데 비해, 이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수행하여 학교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 수업관찰, 현지자료들을 바탕으로 보통교과가 현재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직업특성화고의 보통교과 교육의 현실을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연구 대상의 제한성과 연구 사례의 특수성에 관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연구 참여자를 ‘교사’로 국한시켜 보통교과를 둘러싸고 있는 다층적인 측면을 모두 드러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보통교과의 위상과 역할을 탐색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이 담당한 보통교과 즉 국어(문학), 수학, 과학교과 위주로 다루고 있어 직업특성화고의 모든 보통교과의 특징을 포착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교사를 포함하여 학생, 관리자, 행정가 등 다양한 학교 구성원의 목소리를 담은 연구와 더불어 국어, 수학, 과학교과 이외의 다른 보통교과의 특징도 포괄할 수 있는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해 본다. 더불어 이 연구가 9명의 교사와 5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직업특성화고의 보통교과의 위상과 역할을 탐색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위험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학교의 다양한 여건들을 유형화하여 그에 따른 보통교과의 위상과 역할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어: 직업특성화고 보통교과, 보통교과의 위상과 역할, 직업특성화고의 특징,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 학 번: 2010-23543

차 례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3
3. 용어의 정의	4
가. 직업특성화고등학교.....	4
나. 보통교과.....	5
II. 이론적 배경	6
1. 우리나라 직업특성화고 현황.....	6
가. 직업특성화고의 양적 추이	6
나. 직업특성화고 성격의 변화와 배경.....	12
다. 직업특성화고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16
2. 보통교과의 성격에 관한 고찰	19
가. 학교교육의 변화와 보통교육의 등장	19
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와의 관계.....	24
III. 연구 방법.....	29
1. 연구 방법.....	29
2. 자료 수집.....	30

가. 면담	30
나. 수업 관찰	32
다. 현지 자료	32
3. 연구 절차	33
가. 연구 참여자 선정	33
나. 자료의 분석 및 해석	37
IV. 직업특성화고의 보통교과를 둘러싸고 있는 맥락	40
1. 학생의 특징	41
가. 학생의 다양한 진로 선택	41
나. 학생의 부진한 기초학업능력	44
2. 교사의 특징	47
가. 학교에 대한 비애착적인 태도	47
나. 학창시절의 모범적인 배경	49
3. 학교의 특징	52
가. 취업률 강조 분위기	52
나. 전문교과 교사 주도 학교 운영	55
V. 직업특성화고 교육과정에서 보통교과의 위상과 역할	58
1. 보통교과의 위상	58
가. 주변적인 위치	58
나. 전문교과로부터 단절된 위치	65

2. 보통교과의 역할	70
가. 수능준비 혹은 장기적 삶을 위한 준비	70
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보조.....	76
VI. 직업특성화고 보통교과 교육의 개선을 위한 논의	80
VI. 요약 및 결론	86
1. 요약	86
2. 결론	89
참 고 문 헌	93
Abstract	99

표 차례

<표 II-1> 직업특성화고 학교 수 변화.....	6
<표 II-2> 직업특성화고 학생 수 변화.....	7
<표 II-3> 직업특성화고 진학 사유	8
<표 II-4> 직업특성화고 고 1 학업성취도 비율 추이	9
<표 II-5> 직업특성화고 졸업자 진학률·취업률 변화	9
<표 II-6> 산업별 직업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자 수 변화	10
<표 II-7> 직업특성화고 교사 수 변화.....	11
<표 II-8> 계열별 필수 이수 과목	17
<표 II-9> 2007, 2009, 2012 개정교육과정에서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단위 비교	18
<표 III-1> 면담 주제	31
<표 III-2> 연구 참여자 리스트	37
<표 V-1> 연구 학교별 보통교과(국,수,과)별 시수 변화.....	6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직업특성화 고등학교(이하 직업특성화고)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일반 고등학교(이하 일반고)와 분리 운영되어 중등 수준 직업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1960년대 경제성장계획과 더불어 직업특성화고는 산업분야에서 요구하는 양질의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배출된 우수한 기능 인력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경이로운 경제발전을 달성할 수 있었다. 직업특성화고의 이와 같은 산업인력 양성에 관한 핵심적인 역할과 국가 경제발전이라는 양자 사이의 상관관계가 부각되면서 직업특성화고는 1990년대 중반까지 양적인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김창호, 2000; 정철영, 2001).

그러나 이러한 직업특성화고의 양적 팽창에 비해 실제적으로 직업특성화고 교육이 어느 정도 내실 있는 질적 성장을 이루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강형근, 2004; 이용순 외, 2006; 강태균 외, 2011). 특히, 직업특성화고에서 보통교과가 파행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오히려 직업특성화고 교육 전반에 질적 퇴보를 초래하였다는 지적과 더불어, 보통교과의 쇠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졌다(오춘영 외, 2002; 임기홍, 2011). 이러한 쇠퇴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현재 직업특성화고는 산업 분야의 기술인력 양성에 상당한 무게를 싣고 있어 보통교과가 직업특성화고 내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직업특성화고가 기술인 양성에만 목적을 둔 ‘직업훈련소’와는 다른 성격의 ‘학교’ 즉 고등학교 수준에서 성인의 삶을 준비하는 청소년이 머무는 장소라는 점은, 직업특성화고의 보통교과 교육의 현실에 문제의식을 불러 일으킨다. 분명 직무숙달을 위한 직업교육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직무 교육 이외에 학생이 자신의 삶 전체를 주체적으로 살아갈 때 요구되는 ‘전 생애적인 삶’에 대한 고민 역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통교과는 현대 시민 사회를 살아가는 데에 요구되는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며, 일반적인 능력과 지식을 함양시킨다는 점에서 직업특성화고의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질 필요가 있

다.

앞서 일부 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직업특성화고의 보통교과 교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제대로’된 보통교과 교육이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은 부각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실제 직업특성화고에서의 보통교과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문교과 교육 혹은 직업교육에 관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연구 지평과는 달리, 직업특성화고에서의 보통교과에 대한 연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미흡한 측면이 있다. 특히 현재 국내 연구물에서는 직업특성화고의 보통교과의 현 실태를 중점적으로 조명하는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직업특성화고에서의 보통교과와 관련된 연구물들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주로 다루고 있다. 첫째, 각 보통교과목 별 직업특성화고에 적합한 교수학적 방법론 개발 혹은 직업특성화고에 적합한 교과서 개발이다(박윤배, 2003; 유병훈 외, 2005; 변숙영 외, 2008; 전병숙 외, 2009). 이들 연구물들은 직업특성화고 학생들의 학업 능력과 상황을 고려하여 보통교과가 학생의 흥미와 재미를 고취시켜 학업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교수법 또는 교과서 개발 방식과 접근을 다루고 있다. 둘째, 직업특성화고에서 보통교과 담당 교사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이다(김용호, 1992; 오영재, 2006; 이기운, 2007; 김진, 2010). 이 연구들은 실제 직업특성화고에 재직 중인 교사들의 교실에서의 수업 경험을 탐구하여 직업특성화고에서의 보통교과 수업과 교사 문화를 탐구하고 있다.

이렇듯 두 가지 직업특성화고에서의 보통교과와 관련된 학계의 논의는, 직업특성화고에서의 보통교과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 언급하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지만, 실제 보통교과 교육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다시 말해, 보통교과 교육이 구체적으로 현재 어떠한 상황에 봉착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으며 그 문제의 원인과 배경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지는 않다. 물론, 직업특성화고 교육과정의 실태를 조사하는 연구가 일부 진행되어 있기도 하다(이용순 외, 2005; 강영혜 외, 2008; 장명희 외 2010).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보통교과를 연구의 핵심적인 주제로 다루고 있기 보다는, 개관적인 수준에서 직업특성화고 교육 전반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면서 부분적으로 보통교과의 실태를 간략히 다루고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 연구가 대부분 문헌연구나 설문조사 방식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어 실제 직업특성화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도 있

다.

따라서 직업특성화고에서 보통교과 교육이 현재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지 현장 내부를 들여다 봄으로써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의 연구물들이 ‘직업특성화고의 보통교과가 문제가 있다’는 선언적인 수준의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정도에 그쳤다면, 이 연구는 본격적으로 직업특성화고에서 보통교과 교육이 어떠한 의미와 한계를 지니는지를 탐색해 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기존의 양적 연구에서 활용된 설문조사 방식은 주어진 선택지 이외 교사들의 다양한 생각과, 교사들이 실제로 답한 선택지가 문제점으로 간주되고 있는지 여부를 읽어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 연구는 현장 교사들의 면담을 통해 이러한 제한을 보완해 보고자 한다. 또한 교사들의 인식 이외에도 현지자료들 예컨대 현장에서 만들어진 문서인 교육과정계획서 등과 같은 자료를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주목 받지 못한 보통교과를 둘러싸고 있는 맥락적인 부분들 역시 살펴봄으로써 직업특성화고에서의 보통교과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나마 넓혀보고자 한다.

정리하면, 선행연구에서 직업특성화고의 보통교과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과, 더불어 그동안 조명되지 못한 측면에 주목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들을 가지고 있다. 직업특성화고에서의 보통교과를 둘러싸고 있는 맥락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보통교과가 직업특성화고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드러난 직업특성화고에서의 보통교과의 위상과 역할이 지니는 의미와 한계가 무엇인지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2. 연구문제

이 연구는 직업특성화고에서의 보통교과를 둘러싸고 있는 맥락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보통교과가 직업특성화고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드러난 직업특성화고에서 보통교과의 위상과 역할이 지니는 의미와 한계가 무엇인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특성화고의 보통교과를 둘러싸고 있는 맥락은 무엇인가?

직업특성화고에서 보통교과의 위상과 역할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등학교 수준에서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직업특성화고’라는 특수한 맥락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한 교육 주체인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교운영 측면에서 각각이 지니고 있는 특징을 드러내 보고자 한다.

둘째, 직업특성화고의 교육과정에서 보통교과는 편성과정과 실행과정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첫 번째 연구문제를 통해 도출된 직업특성화고의 학생, 교사, 학교의 세 가지 맥락적 특징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되는 과정과 교사가 이를 실행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직업특성화고에서 보통교과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역할을 탐색하여 본다.

3. 용어의 정의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가. 직업특성화고등학교

중등직업교육기관에 대한 명칭은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국가교육과정 상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는 이황원(2009)이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 고등학교 유형에 관한 법령이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중등직업교육기관을 일치된 하나의 명칭으로 규정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의미한다. 초·중등교육법에는 ‘고등기술학교로’, 초·중등교육시행령에는 ‘실업계고’, ‘전문계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로, 국가교육과정문서에는 ‘실업계고’,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로 제각기 다르게 표기하고 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이 ‘고등기술학교’로 일관되게 명명하는 것과 달리 초·중등교육

법시행령과 국가교육과정은 시기별로 그 명칭을 상이하게 표기하고 있다.

국가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제4차 교육과정 이후로 중등직업교육기관을 ‘실업계고’라고 명명하다가 최근 2009개정 교육과정에는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로 개칭하였다. 한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국가교육과정 보다 복잡한 명칭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07년 2월 1일자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까지는 ‘실업계고(80조), ‘특수목적고(90조), ‘특성화고(91조)’를 세부 조항 별로 각기 명칭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그 후 개정된 2007년 4월 12일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80조에서는 ‘실업계고’를 ‘전문계고’로 개칭하였으나,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 명칭은 여전히 90조와 91조에서 각각 사용하고 있다. 그러다가 2010년 6월 29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전문계고’를 ‘특성화고’로, 최근 개정된 시행령(2013. 03. 23)에는 ‘전문계고’ 명칭도 삭제되고 ‘특성화고’로만 명시하고 있으며 특수목적고의 한 유형으로 ‘마이스터고’를 추가하였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6월 29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이후 혼란스러운 학교 유형을 ‘특성화고’로 일원화시켰다. 그러나 이 명칭 역시 대안학교 유형을 포함하고 있어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명칭상의 혼동을 피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직업특성화고등학교’(이하 직업특성화고)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고등학교 수준의 직업교육기관을 가리키는 공식 명칭인 ‘직업특성화고’ 보다는, ‘전문계고’ 혹은 ‘실업계고’라는 명칭을 상용하고 있어, 면담 자료에는 이를 그대로 표기하였다.

나. 보통교과

보통교과는 국가교육과정상 고등학교 교과 구분에서 전문교과와 대비되어 제시되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역사, 윤리, 도덕), 음악, 미술, 체육, 기술, 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이러한 교과목을 ‘보통교과’, ‘일반교과’, ‘인문교과’라는 명칭을 일반적으로 혼용하고 있어 면담 자료에는 이를 그대로 반영하였음을 미리 밝혀 둔다.

II. 이론적 배경

1. 우리나라 직업특성화고 현황

이 장에서 우선 우리나라 직업특성화고에 관한 현황을 통계지표를 통해 살펴보고,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사회, 경제, 정치적 변동에 따른 직업특성화고의 성격의 변화를 탐색하여 본다. 이와 함께, 직업특성화고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측면에서 드러난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직업특성화고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가. 직업특성화고의 양적 추이

직업특성화고와 관련된 변화의 흐름을 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직업특성화고의 학교 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래 <표 II-1>은 지난 십년간의 전체 고등학교 수와 직업특성화고 수의 변화를 나타낸다.

<표 II-1> 직업특성화고 학교 수 변화

연도	고교전체 (개)	직업특성화고 (개)	직업특성화고 비율(%)	농업고 (명)	공업고 (명)	상업고 (명)	수산·해 양고(명)	가사·실 업고(명)
2002	2,060	536	26.0	28	209	221	8	69
2003	2,095	535	25.5	28	209	217	8	73
2004	2,141	533	24.9	31	209	220	8	65
2005	2,156	527	24.4	31	212	212	8	64
2006	2,203	523	23.7	30	212	209	8	64
2007	2,218	513	23.1	25	212	199	7	70
2008	2,250	506	22.5	28	209	193	7	69
2009	2,284	504	22.1	29	210	189	7	69
2010	2,313	503	21.7	30	212	190	7	64
2011	2,331	483	20.7	30	195	190	7	61
2012	2,352	475	20.1	37	202	186	8	42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교육통계연보(각 년도 별),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참고.

직업특성화고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양, 가사·실업 계열에 따른 학교 수는 년도 별로 증감에 차이가 있으나 직업특성화고 전체 학교 수 변화 추이는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02년 536개였던 직업특성화고가 2012년 475개로 감소하였고, 전체 고등학교 수 대비 직업특성화고의 비율은 10년간 지속적으로 줄어 들었다.

직업특성화고 학생 수의 추이 역시 학교 수의 추이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아래 표는 전체 학생 수를 기준으로 일반고교 학생 수와 직업특성화고교 학생 수를 비교한 자료이다. 전체 고교생과 일반고교생 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직업특성화고교생의 수는 감소 추세이며 전체 학생 수 대비 비율 역시 2011년 기준 20% 미만으로 떨어졌다.

<표 II-2> 직업특성화고 학생 수 변화

연도	전체 고등학생 수 (명)	일반고교 학생 수 (명)	직업특성화고 학생 수(명)	직업특성화고 학생 비율(%)
2002	1,795,509	1,273,839	521,670	29.0
2003	1,799,529	1,224,452	492,322	27.4
2004	1,746,560	1,227,153	464,328	26.6
2005	1,762,896	1,250,509	453,442	25.7
2006	1,775,857	1,270,605	444,869	25.1
2007	1,843,853	1,345,779	351,305	19.1
2008	1,896,151	1,408,551	430,322	22.7
2009	1,965,792	1,484,966	387,845	19.7
2010	1,962,356	1,496,227	370,926	18.9
2011	1,960,338	1,425,882	355,523	18.1
2012	1,935,704	1,381,130	330,797	17.1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교육통계연보(각 년도 별) 참고.

다음으로는 직업특성화고로 진학한 학생들이 어떠한 이유로 직업특성화고를 선택했는지를 나타내는 최근 2년간의 자료이다.

<표 II-3> 직업특성화고 진학 사유

(단위: %)

	진학 보다 취업 선호	원하 던 분야	가정 형편	성적	대학 진학 유리	취업 진학 병행	부모 권유	교사 권유	친구 권유	기타
2011	14.7	28.9	3.2	10.0	26.1	7.8	2.3	2.4	1.0	3.6
2012	28.7	29.0	1.8	7.1	14.8	10.4	2.3	1.7	0.8	3.4

자료: 임연 외(2012). 특성화고 진로이력 분석연구 201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1년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이 직업특성화고에 진학한 이유는 원하던 분야(28.9%), 대학진학에 유리(26.1%), 진학보다 취업선호(14.7%) 순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역시 우선순위는 원하던 분야(29.0%)이기 때문에 진학했다는 이유이지만 진학보다는 취업선호(28.7%)가 대학진학유리(14.8%) 항목보다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직업특성화고에 진학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성취 수준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기초과목으로 분류된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을 대상으로 전국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학업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아래 표는 이 연구와 관련된 직업특성화고 학생들의 국어와 수학 과목의 성취 수준과 이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일반고의 해당 지표도 함께 제시하였다.

<표 II-4> 직업특성화고 고1 학업성취도 비율 추이

(단위: %)

교과	성취수준	2006		2007		2008	
		직업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 특성화 고	일반고	직업 특성화고	일반고
국어	우수학력	1.7	23.6	1.3	19.1	1.5	25.2
	보통학력	26.0	51.6	23.4	52.2	26.7	53.7
	기초학력	60.0	22.9	61.9	25.3	60.9	19.4
	기초미달	12.4	1.9	13.4	3.4	10.9	1.7
수학	우수학력	0.3	18.8	0.7	22.1	0.4	20.3
	일반학력	6.1	45.2	6.8	44.5	7.2	46.1
	기초학력	61.1	31.5	68.8	30.2	68.2	29.4
	기초미달	32.5	4.6	23.7	3.2	24.2	4.2

자료: 박동열 외(2009). 전문계 고교생의 기초학습능력 향상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우 기초학력 수준이거나 기초미달 수준인 경우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국어과의 경우 72.4%, 75.3%, 71.8%이며, 수학과 의 경우는 93.6%, 92.6%, 92.4%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의 직업특성화고 학생들이 국어와 수학교과에서 기초학력이 부진을 겪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직업특성화고 졸업자의 진로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과 2012년을 제외한 년도는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5> 직업특성화고 졸업자 진학률·취업률 변화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진학률	71.5	72.9	73.5	71.1	68.7	50.2
취업률	20.2	19.0	16.7	19.2	21.2	38.9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교육통계연보. 2011년과 2012년 수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종합고편람' 참조하였음.

최근 3년간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자의 산업분야 별 취업률 변화를 살펴보

면 <표 II-6>와 같다.

<표 II-6> 산업별 직업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자 수 변화 (단위: 명)

구분		2010	2011	2012
산업 분야	농업, 임업, 어업	317	483	592
	광업	6	20	8
	제조업	17,493	22,191	26,46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90	776	1,123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2	50	56
	건설업	920	824	1,248
	도소매업	2,051	2,353	3,381
	운수업	586	565	552
	숙박 및 음식점업	1,174	1,318	2,57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922	1,225	2,292
	금융, 보험	447	481	1,408
	부동산, 임대	26	36	8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006	1,081	1,63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662	741	1,04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43	550	1,271
	교육서비스업	306	267	41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0	944	1,10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71	647	96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007	1,003	1,503
	자가소비생산활동	201	117	259
국제 및 외국기관	6	26	78	
합계	29,916	35,698	48,046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교육통계연보(각 년도)

산업분야 취업자 수는 제조업 분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순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이들 분야의 취업자 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참여자들인 직업특성화고 교사와 관련된 최근 통계 자료이다. 2011년, 2012년 특성화고·종합고·마이스터고 편람에 따르면, 계열별 보통교과교사 수와 전문교과 교사 수 모두 소폭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자료는 다음 <표 II-7>와 같다.

<표 II-7> 직업특성화고 교사 수 변화 (단위: 명)

계열	2011		2012	
	교사(보통)	교사(전문)	교사(보통)	교사(전문)
농업	550	684	621	776
공업	4,827	6,181	4,843	6,403
상업	5,040	4,563	4,931	4,461
수산·해양	137	154	113	126
가사·실업	1,166	1,207	835	856
합계	11,720	12,789	11,343	12,622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1). 특성화고, 종합고, 마이스터고 편람 2011.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2012). 특성화고, 종합고, 마이스터고 편람 2012. 교육과학기술부

이 절에서는 양적 지표로 직업특성화고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교 수, 학생 수가 2002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해 온 것에 반해, 직업특성화고의 학교 수와 학생 수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담당 교사 수 역시 2011년, 2012년에 모두 소폭 줄어 들었다. 또한 직업특성화고 학생들의 국어와 수학 교과 기초학력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며, 학생들의 취업률의 경우 최근 2년 동안 진학률에 비해 해마다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나. 직업특성화고 성격의 변화와 배경

우리나라 직업특성화고가 추구하는 교육목적 즉 직업특성화고 교육을 통해 양성해 내고자 하는 인력의 특징은 시대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직업특성화고의 교육적 성격의 다양한 스펙트럼은 직업특성화고에 관련된 정부 정책의 변화와 사회경제적인 변화가 그 배경 요소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직업특성화고의 성격이 시대별로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를 간략히 살펴본 후, 직업교육정책과 사회경제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탐색해 보도록 한다.

해방 후 미군정기를 지나며 우리나라 중등직업교육은 새로운 국가 건설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당면 과제를 안고 출발하였다. 당시 문교부는 서구의 종합고등학교제를 도입하여 실험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반고등학교와 달리 농업, 공업, 상업 분야를 학생이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직업교육은 불모지에 가까운 상태로 교육을 시킬 교사도, 교육을 받은 사람을 수용할 일자리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그럼에도 이 시기의 중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은 ‘일인이기(一人一技)’의 교육을 강조하며 유교적 전통에서 기술인을 경시하는 풍조를 시정하고 국가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초를 마련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이중성, 1999).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우리 사회가 본격적으로 노동집약산업의 발전으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룬 시기에 해당된다. 특히 경제발전 초기 단계였던 60년대의 경우, 정부의 경제제일주의와 국가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던 때이다. 당시 산업은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수출하는 수출주도형의 경공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당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1963년 산업교육진흥법 시행과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 하였다. 특히 산업교육진흥법이 직업특성화고에서 실습비 국고보조, 산학협동과 현장실습 실과 교육과 실업계 학생 우대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직업특성화고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70년대 들어서서는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대두로 인해 산업구조의 변화가 요구되었다. 즉 노동집약적산업인 경공업을 벗어나 국가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전략 산업이 필요해졌다(이만희, 1966). 이에 따라 정부는 1973년 중화학 공업화를 선언하며 해당 분야에 종사할 기능공 양성에 주목하게 된다. 이 후 정부의

투자로 기존의 공업계열 고등학교를 특별 지정하거나 신설하여 중화학 공업 분야 인력 수요에 부응하도록 하였다. 한편, 60년대 경공업 분야의 단순한 기능 인력보다 중화학 공업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능공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직업특성화고로 하여금 ‘기술인력의 정예화’ 라는 직업교육의 새로운 방침을 세우도록 하였다(직업교육훈련 100년사, 1999). 중등수준의 직업교육을 받은 후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인력 양성이 당시 직업특성화고가 지향해야 했던 직업교육의 성격이었다. 이는 직업특성화고가 학생들에게 습득해야 할 해당 분야의 기술을 세분화하여 특정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주력하도록 하였다. 70년대 ‘기술인력의 정예화’의 흐름은 60년대 직업특성화고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성장을 이루게 한 또 하나의 기틀이 되었다.

그러나 80년대 들어, 70년대 정예화된 기능공 양성이라는 직업특성화고의 교육방향에 대한 비판이 등장하였다(이정한, 1980). 이는 단순 특정 기능 습득을 강조하여 전인교육이 소홀히 여겨졌으며, 합격률이 학교 간의 우열을 가리는 척도로 전략한 풍토 등에 대한 지적이다. 또한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변화됨에 따라 중등수준에서의 직업교육은 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정부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교육의 정상화 방침’을 선언하고 직업교육의 중심을 직업특성화고에서 전문대학과 이공계 대학 육성으로 전환함에 따라 중등수준의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줄어들었다. 따라서 당시 직업특성화고의 성격은 특정한 분야의 완성 기능공을 양정보다는, 기초 기술자 즉 전문대학 수준에서의 기술자 이전 단계로서 ‘다능공 양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 때 다능공은 한 직업군 속에서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춘 자를 의미한다(직업교육훈련 100년사, 1999). 직업특성화고에서는 이러한 다능공을 양성함으로써 일정 직업군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초학습과 기본기능 지도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실제 80년대 경기 침체로 인해 직업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지원이 줄어들면서 직업특성화고의 비율이 70년대 55%선이었던 것이 1989년 32%까지 떨어지면서(김중숙 외, 2010), 직업특성화고의 성장이 전반적으로 느려진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8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직업특성화고 성장에 걸린 제동은 직업특성화고의 입학지원자 수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켰다. 이에 정부는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90년대 초 ‘산업 인력 수급 대책’을 발표하고 기능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직업특성화고의 증설, 일반고등학교의 특성화고교로의 전환 등의 시도를 하

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특히 공업계열 직업특성화고의 양적 확대를 일반고등학교 대 직업특성화고의 비율을 50 대 50까지로 조정하기 위해 재정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90년대 초기 주목할 만한 정책은 ‘2·1 체제’로, 직업특성화고 학생들로 하여금 1,2학년 시기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3학년의 1년은 산업체에 투입되어 실습을 받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는 직업특성화고의 성격을 60-70년대 특정 기능인 양성 기관에서 80년대 다능공 양성 기관으로 바꾸려는 노력에 역행하여, 다시 단능공 양성소의 성격으로 회귀시키는 것이었다. 실제 2학년을 마치고 현장에 투입된 학생들은 현장 실습이라기 보다는 조기취업을 한 상태로 단순한 반복 작업이 대부분을 이룰 수 밖에 없었고 결국 이것은 중소기업체들의 단순 기능적 인력난 해결 차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높았다(최규남, 2003).

90년대 중반부터는 대학설립의 자율화가 확대되고 소득수준의 향상과 자녀 수 감소로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 진학 욕구가 증대되었다(정태화 외, 2011). 뿐만 아니라 1996년에 발표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은 평생학습사회 구축을 위한 평생직업교육체제를 마련하였고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배경은 직업특성화고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 90년대 중반까지 직업특성화고의 성격은 ‘일의 현장으로 전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어 지역사회에 필요한 노동력을 충족시키고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하게 하는 것’(김창호, 2002)이었다면, 90년대 후반부터는 학생들이 광범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전문대학 혹은 일반대학에 진학하여 계속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전환된다(이무근, 2003). 특히 산업 기술이 지식화, 정보화됨에 따라 기술 분야와 관련된 지식과 정보가 중요해지고 이에 따른 지속적인 학습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흐름의 일환으로 정부는 기존 실업계고와 전문계고의 다양화, 개방화를 전제로 질적 내실화를 위해 ‘특성화고’¹를 설립하였다. 즉 이때까지의 직업특성화고에 대한 국가 정책이 산업계의 요구하는 인력 양성 공급 특히 제조업 중심의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

¹ 1996년에 발표된 ‘교육개혁안’으로 인해 ‘실업계고’ 혹은 ‘전문계고’와는 다른, 중등수준의 직업교육 기관을 명명하는 개념으로 ‘특성화고’가 등장하였다. 당시 정부는 획일화된 대규모의 고등학교 형태로는 세계화, 정보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특성화된 소규모 고등학교의 자유로운 설립 및 운영을 허용하였다. ‘특성화고’는 ‘특정분야에 소질과 적성을 가지고 진로를 결정하여 일찍부터 해당 사업 분야의 직업 준비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들 대상으로 정보 고등학교, 디자인 고등학교, 전자 통신 고등학교 등과 같이 특정 전문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로 규정되어 있다(오승균 외, 2006).

추어 ‘산업사회형 직업교육’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등수준의 직업교육기관을 전환하고자 하였다. 또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의 연계인 ‘2+2체제’를 구축하여 직업특성화고 학생이 졸업 후 고등수준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다(정지선, 1998). 이러한 90년대 후반의 상황에서 직업특성화고는 기초 직업교육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으로서 평생교육의 체제 내에서 국민공통기본교육 등의 보통교육과 더불어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정분야 등에 관한 기초 전문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성격임을 의미한다(마상진, 2004).

이러한 직업특성화고의 성격은 기술집약산업에서 지식기반산업이 발전하는 200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다. 특히 수능에 직업탐구영역을 신설하여 특성화고 동일계 대학 진학의 길이 수월해짐에 따라 직업특성화고 진학률이 월등히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7년 도입된 ‘희망을 실현하는 전문계고 육성 전략’은 ‘희망적인 Career Path’를 제시하며 실업계고의 특성화 추진 및 졸업 후 취업 및 학사학위 취득까지의 경로를 제시하여 직업특성화고가 핵심 기술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후반부터 직업특성화고 졸업생의 진학률이 취업률을 압도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중등수준의 직업교육의 정체성 혼란의 문제가 대두되었다(이용순, 2006; 정태화 외, 2011; 강형근, 2004). 이에 정부는 중등수준의 직업교육에 대한 정책의 방향을 ‘취업중심’으로 전환시켰고 특히 2010년 고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의 추진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강화시켰다. 이는 선진화 방안이 특화된 직업교육기관으로 직업특성화고를 전면 개편하고, 선취업 후진학 체제를 강조하기 때문이다(나현미 외, 2011). 이러한 2000년대 후반의 흐름에 이어 2013년 출범한 새 정부 역시 그동안 추진해온 직업교육 방향을 따르고 있다. 이번 새 정부는 지난 정부의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들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취업중심 고교 직업교육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나아가 고졸 취업자의 직업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수립할 계획이다(윤형한, 2013). 한편 사회적으로 대학졸업자들의 취업활동에 어려움이 따르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자 최근 대학졸업장에 대한 기대치가 줄어들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직후의 취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직업특성화고 진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점차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금까지 해방 후 1950년대부터 2013년 최근까지 우리나라 중등수준의

직업교육기관인 직업특성화고의 시대별 성격 변화와 그 배경에 대해 살펴 보았다. 우리나라 중등수준의 직업교육은 시대변천에 따라, 특히 정권 별로 추진된 정책의 방향과 당시 사회경제적 배경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는 건국이래 직업특성화고의 설립목적이 국가의 중요한 산업 인력을 공급하고 고졸자들에게 직업을 준비시키는 교육기관으로 국가수준과 개인수준에서 수단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직업특성화고 교육의 방향은 다양하게 나타났다가 보다, 두 가지 큰 흐름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정 산업분야에서 요구하는 세분화된 기술을 습득해야 하고 졸업 후 현장에 바로 투입이 되어야 하는 직무중심의 ‘완성교육’이 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다른 쪽 축에는 학생들로 하여금 폭넓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직업의 기초적인 부분을 함양시켜 평생교육측면에서 직업교육을 접근해야 한다는 ‘계속교육’이 있다. 그리고 직업특성화고 교육의 방향은 이 양자 사이를 마치진자의 추가 반복운동을 하듯, 시대별 상황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 직업특성화고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단위학교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골자로 2011, 2012년에 수시로 개정된 교육과정이다. 그러나 이 연구가 진행된 시점은 2011년 하반기부터 2013년 4월까지로 단위학교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2007 개정 교육과정도 일부 적용되고 있었다. 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이 2010년에 총론만 시행된 상황이어서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은, 특히 각 교과외의 경우, 여전히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최근에 개정된 교육과정까지를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틀은 1학년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2·3학년의 선택중심교육과정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국어, 도덕, 사회(국사), 수학, 과학, 기술·가정, 음악, 미술, 외국어, 한문, 교양으로 구성되어 있고 선택교육과정의 선택교과는 일반선택과 심화선택으로 구분되어 있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60단위와 2·3학년 보통교과 20단위를 합쳐 총 80단위를 이수하고 전문교과는 2·3학년 시기에 80단위를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업특성화고에서 가르치는 전문교과는 일반고의 보통교과를 제외한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교과로서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사·실업에 관련된 교과를 가리킨다. 또한 직업특성화고는 계열별로 필수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다음 표에 제시하였다.

<표 II-8> 계열별 필수 이수 과목

직업특성화고 계열	필수 이수 과목
농·생명 산업 (농업)	농업이해, 농업 기초 기술, 농업 정보관리
공업	공업 입문, 기초 제도, 정보 기술 기초
상업·정보(상업)	상업 경제, 회계 원리, 컴퓨터 일반
수산·해운	해양일반, 수산해운정보처리, 수산일반(수산계열), 해사일반(해운계열)
가사·실업	인간 발달, 컴퓨터 일반

이 전 교육과정에서는 전문교과의 과목 개설에 제한이 있었다. 예컨대 체육, 미술, 음악 교과의 심화 선택과목과 교양교과의 심화 선택과목이 이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2007 개정에 와서는 학교의 필요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전문교과의 과목을 개설 및 새로운 과목 신설도 가능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선택중심교육과정으로 구분하였던 부분을,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선택교육과정으로 전환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직업특성화고는 일반고에 (총 180단위) 비해 보통교과들에 총 72단위 최소 필수 단위가 배정되었다. 또한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의 교차 선택을 제한하였으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차선택이 가능하여 보통교과를 편성할 때 전문교과도 편성이 가능해졌다.

전문교과의 경우, 이전과 동일하게 80단위 이상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과목에 대한 이수 단위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전문 교과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경우, 보통교과 이수로 간주 가능하며 내용이 유사할 시, 관련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교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기존에 부과되던 학과별 필수 기초 과목을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요약해 보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보통교과의 이수 단위는 72단위, 전문교과는 80단위로 배정되었으며, 양 교과 사이 비율은 여전히 대략 53:47 정도 이다.

2011 개정 교육과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볼 때 직업특성화고와 관련된 변경사항은 거의 없으나, 2012 개정의 경우는 몇 가지 가시적인 변화가 있다. 먼저 이전까지와는 달리 ‘일반고 및 특수목적고’ 교육과정 다음에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맞춤고 교육과정’을 별도로 제시하고 해당 지침들을 상세히 기재하였다. 이는 직업특성화고에 대한 최근 높아진 관심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척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편성·운영 지침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직업특성화고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지침들을 제시하는데 주목할 부분은 ‘학생의 취업 역량과 경력 개발’을 위해 교과 시수 배정에 다소 큰 변화가 있다. 특히 보통교과의 시수는 기존 72단위에서 60단위로, 이와 반대로 전문교과 시수는 80단위에서 86단위로 증감되었다. 더불어 학생의 적성과 진로 및 산업계의 수요를 고려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과정도 28단위에서 34단위로 증가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2012 개정 교육과정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사이 단위 배당을 정리하여 보면 <표 II-9>와 같다. 2007년 이후 보통교과의 비율이 점차 줄어 있으며 전문교과의 비중이 늘어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9> 2007, 2009, 201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단위 비교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2012 개정 교육과정	
보통교과	전문교과	보통교과	전문교과	보통교과	전문교과
80	80	72	80	60	86

2. 보통교과의 성격에 관한 고찰

학교에서 다루는 교과가 지니고 있는 성격에 관한 논의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일정한 장소에 모여 교육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어떠한 교육적 이상을 상정하는지에 따라 고정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시대에 따라 유동적이었다. 전통적으로 학교교육은 고대 희랍 사회에서의 인간 정신의 자유로운 발달을 위한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 그리고 중세 인간다움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인간의 이성을 발달시키는 인문교육(humanistic education)의 전통에 기반을 두었지만, 20세기에 이르러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특정 직업기술을 연마시키는 직업교육(vocational education) 및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 요구되는 일반적인 능력을 함양시키는 보통교육(general education)이 학교교육의 주된 교육적 방향으로 상정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현대 학교교육이 기존의 교육적 이상을 온전히 배제한 채, 직업교육과 보통교육의 이상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현대 학교교육은 기존의 교육의 방향과 내적 갈등을 겪으며, 사회의 새로운 필요와 요구를 결합시켜 나아가는 양상, 요컨대 혼성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점은 현대 학교교육에서 보통교육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변천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보통교육이 어떠한 역사적 맥락 하에 등장하게 되었고, 이전의 교육이 추구하던 방향과 어떠한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 보아야 그것의 성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도출하여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학교교육 변천 과정에 근거하여 보통교육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도출된 보통교육의 성격이 직업교육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 연구 전반에 적용될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정립해 보고자 한다.

가. 학교교육의 변화와 보통교육의 등장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질문한다면, 대부분 ‘교과’를 언급한다. 교과는 영어로 ‘subject matter’로 일컬어 지는데, 이는 학교에서 다루는 교육적 소재, 즉 학교에서의 가르침과 배움의 대상이 되는 내용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내용으로서 학교교과는 역사적으로 볼 때 자

유교육의 전통으로부터 유래한다. 전통적 자유교육은 현재의 학교에서 다루는 교육내용, 즉 학교교과와는 여러 측면에서 상이하다. 무엇보다도 당시 자유교육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이라기보다 희랍시대 자유인, 즉 노예의 노동으로 인해 여가를 획득한, 지배 계층을 위한 교육이었다. 이는 자유교육이 노예적, 기계적인 것, 즉 실생활과 직접적인 것과 대조적으로, 인간의 일상을 초월한 예컨대 불멸의 진리를 위한 사색적 활동과 관련됨을 의미한다. 이 때 불멸의 진리는 인간 세계 위의 신의 지식 즉 “인간에 의해 인지 가능한 (more knowable by us) 지식”이기 보다는 “그 자체로 인지 가능한 (more knowable in themselves) 지식”이다(Grant, 1979). 그리고 이러한 자유교육의 이상을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그리스 로마시대의 7자유교과 (Seven Liberal Arts)이다. 7자유교과는 세상의 담론의 질서를 다루는 3학 (trivium)인 문법, 수사학, 변증법과 실재에 대한 양적 질서에 관심을 두는 4학 (quadrivium)인 산술, 기하, 천문, 음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통적인 희랍시대 자유교육은 로마시대를 거쳐 중세 시대에 이르러 제도적, 계급적인 측면이 사라지고 기능적인 측면 예컨대, 성서 이해의 수단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백승균 외, 2004). 그러나 이후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 자유교육은 ‘인간다움’ 즉 인간성 실현을 목적으로 삼는 ‘후머니타스’의 인문학적 의미가 강조되었다. 그리고 이 당시에 학교에서 다루어진 인문교육에는 언어, 문학, 사학, 예술, 철학, 윤리학, 종교학, 문화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당시 교육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인문교육에서 취하는 인간성에 대한 탐구 방식이 비판적, 사변적인 접근, 즉 순수한 인간의 이성의 작용을 중시 여기는데 반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접근 방식은 실증적, 경험적, 실험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최현철, 2012). 그러나 근대의 시기로 접어들어 17세기, 과학과 지식 혁명의 도래로 자연과학은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전통적 인문교육에서 다루는 교육에 대한 반성이 촉구되었다(진영은 외, 2001). 학교교육에 이러한 변화와 요구는 19세기에 이르러 본격화 되었다. 특히 대학의 전문교육과정 입문 이전에 이수해야 했던 교양교육(liberal arts)이 주목 받게 되면서 자유교육과 인문교육의 변화는 가속화되었다. 당시 대학의 교양교육은 교양인이 지녀야 할 예비적 소양 함양에 목적을 두었으며 이 때 요구되었던 소양은 전통적 자유교과와 인문교과에 모체를 두고 있었으나, 과학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교양인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되어 교양교육에 자연과학이 포함되기 시작

하였다(손승남, 2011). 이는 기존의 인문교육과 자유교육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던 학교교육에 새로운 흐름이 도입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실제 학교에서 다루어지고 있던 교육에서는 19세기 말까지도 고전과 전통적인 인문적 요소를 강조하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흐름은 미국 교육과정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세기 말 무렵까지 미국의 학교교육은 ‘다섯 가지 영혼의 창’으로 불리는 수학, 지리, 역사, 문법, 문학과 예술을 인류 지혜의 총체로 간주하며 가장 가치롭고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었다(Kliebard, 2004). 교육의 전제 또한 ‘진리에 대한 지식,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 선을 행하는 습관’과 같이 전통적인 자유교육과 인문교육이 추구하는 방향과 매우 흡사하였다. 그러나 20세기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사회 제도의 급격한 변화와 학교교육의 대중화는 기존의 전통적인 학교교육, 다시 말해 지식 자체 추구를 통한 이성 계발에 대한 비판과 반성을 일으켰다. 특히 사회효율성 혹은 사회유용성 측면이 학교교육에 강하게 부각되면서 졸업 후 학생이 사회에 진출하여 살아갈 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교육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교육에서 학생의 실제의 삶과는 거리가 있는 인문적 전통의 학교교과에 대한 재조정이 이루어졌다. 점차 학교에서 다루는 교과는 학생의 삶 속에서 당면한 혹은 직업적인 필요에 바탕을 둔 교과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수학 교과에서는 대수학과 같은 학문적 성격이 강한 내용이 점차 생략되고 학생들의 필요에 바탕을 둔 일반수학이 부각되었다. 또한 역사 교과의 경우는 민주시민 양성, 사회정의, 사회 문제를 다루기 위해 역사와 별도의 사회 교과가 등장한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대 학교교육의 성격 변화는 적서(Redbook)로 알려져 있는 1945년 하버드 교수 위원회의 『자유로운 사회에서의 보통교육(General Education in a Free Society)』이 발간됨에 따라 전통적 학교교과의 재편성에 가속이 붙게 되었다. 이 보고서는 직업교육에 대한 학교의 역할과 더불어 보통교육의 중요성을 결합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담겨 있다. 이 보고서에서 상정한 교육의 목적이 “한 개인을 특별한 직업 또는 기술의 전문가가 되도록 준비시키는 것과 더불어 자유로운 사람과 시민이 되도록 하는 일반적인 기술을 준비시키는 것” (Kliebard, 2004:206) 이라는 점은 이를 명확하게 한다. 물론, 이 때 언급된 ‘자유로운 사람’의 개념이 여전히 전통적 인문교육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Gaff, 1983; Kliebard, 2004)도 있으나, 중요한 것은 이 보

고서가 전문교육과 직업교육을 구분하여 이와 대등한 위치에 보통교육을 상정하였다는 점이다. 즉 이는 고등교육 수준에서의 전문교육과 직업교육에서 요구되는 특정한 지식과 능력 이외에 ‘일반적인 능력’을 주목하고 있다. 이전까지의 교육에서는 지식을 통한 인간 이성과 마음의 계발 즉 사변적인 활동이 가장 강조되었다. 그러나 하버드 적서에 나타난 ‘일반적인 능력’ 예를 들면, 효율적인 사고, 의사소통능력, 적절한 판단능력, 가치 구분능력 등과 같은 측면(The Harvard Committee, 1955)은 정서적, 도덕적 발달과 같은 개인 발달의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였다. 다시 말해, 이 보고서는 전통적인 학교교육의 강조점인 지식의 습득과 더불어, 개인이 당면한 삶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일반적인 자질이나 능력 계발에 초점(소경희, 2010:45)을 가지도록 하였다.

하버드 적서를 필두로 미국 보통교육의 모습은 다양한 방향으로 진화 발전하며 여러 가지 모델과 철학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보통교육에 관한 여러 입장과 관점을 김복영(1996)은 대략 11가지로 구분하여 역사적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145-146). 각 시대의 흐름 속 다양하게 나타나는 보통교육의 성격은 세부 교과 분야를 설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다양한 동기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교과가 등장하기도 하고 기존의 교과가 제외되기도 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렇듯 보통교육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추구하는 주된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이는 보통교육의 ‘일반성’ 즉 전문교육과 직업교육의 특수성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일반성’을 강조할 때 무엇에 무게를 실느냐에 따라 다소 다른 측면의 일반성을 논의할 수 있다. 우선, 교육 받는 학생을 대상으로 모두 ‘동일한 지식내용’을 접할 필요를 강조하는, 공통교육과정(common curriculum)과 같은 의미에서 보통교육의 일반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공통교육과정은 국가에서 제시하는 의무교육기간 동안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접해야 하는 기초적이면서 동일한 일련의 지식과 경험을 의미한다(Lawton, 1980). 이는 모든 학생이 공통교육과정을 통해 동일한 문화나 지식내용을 전수 받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통교육의 일반성을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련의 공통된 지식 공유 측면과 이 외에도 시민사회를 나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삶의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는 보통교육의 일반성도 존재한다. 이론적이거나 직업적인 것보다 예컨대 시민사회 문제와 같이 모든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당면한 것들을 다루는 학습에 초점을 둘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를

위해 보통교육에서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표현하는 능력, 타인 존중 능력, 협동능력에 주목해야 한다(김복영, 1996). 따라서 이러한 보통교육 하에서의 교육은 문제중심, 탐구중심, 집단협력을 중시하며 서로 다른 배경의 이질적인 학생들을 유능한 시민으로 함양하는 것에 가치를 둔다. 이상의 두 관점은 서로 입장은 두 가지 다른 측면에서의 일반성을 주장하며 보통교육의 방향을 설정한다. Hlebowitsh(1993)는 역사적 맥락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진보주의적 가치와 원리 즉 후자의 측면이 보통교육 안에 흐르는 가치와 원리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교육과정사 속 등장하는 보통교육에 대한 이 두 가지 관점은 어느 한 입장이 지배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양 입장이 혼재되어 보통교육의 성격을 구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 후 학교교육의 대중화와 의무교육 기간의 점진적인 확대로 ‘모두를 위한 보통교육’이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경험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특히 제 7차 교육과정이 모든 사람에게 기초적이면서 일반적인 교양을 다루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연한을 10학년까지로 설정함에 따라, 초등교육과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교육이 보통교육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최근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전 과정을 선택교육과정으로, 중학교 3학년까지를 공통교육과정으로 지정하게 되면서 기존의 보통교육에 대한 의미를 달리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공통된 지식과 경험을 전수를 강조하는 기존의 공통교육으로서의 보통교육은 중학교까지의 과정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수준에서 논의되는 보통교육은 공통교육의 측면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을 통해 시민사회의 일원을 양성하는 보통교육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국가교육과정상 명시된 고등학교 교육의 목표를 통해서도 이러한 측면을 확인해 볼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1. 성숙한 자아의식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진로를 개척하며 **평생 학습의 기본 역량과 태도**를 갖춘다.
2. 학습과 **생활에서 새로운 이해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익힌다.
3. 우리의 **문화를 향유**하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자

질과 태도를 갖춘다.

4.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또한 국가교육과정은 고등학교 교과를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교육과정이 특수하고 직업적인 부분과 대비되는 차원에서 보통교과²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며 이 점 역시 공통교과로서의 보통교과와는 다소 다른 의미의 보통교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고등학교가 보통교육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때 보통교육은 모두를 위한 공통된 내용의 학습 측면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지나치게 학문적이거나 지나치게 직업적인 성격에서 다소 벗어나 보편적인 삶과 결부된 보통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다. 물론, 학교교육에서 다루는 보통교과는 역사적인 교과의 변천 과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특히 그 내용에 있어서 여전히 인문교육적, 학문적 성격이 잔존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보통교육이 학교교육의 전형으로 간주되고 학교교육의 일반성 측면이 부각되면서부터 보통교육은 보편적인 삶 예컨대 시민사회에서의 삶을 위한 일반적인 능력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와의 관계

현대 사회는 지식이 산업 생산의 새로운 수단 역할을 담당하는 지식기반사회로, 유용하고 창의적인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고급 기술 인력 및 전문 인력을 요구하고 있다. 근대 사회의 단순 기능인력이 아니라, 고도화된 산업구조에 적합한 유연하며 다기능적인 인력 및 일정 수준이상의 교육을 받은 고급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전문인력에 계뿐만 아니라 여전히 현대 산업구조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술·기계 분야의 기능공에게도 컴퓨터기반 기계들과 이를 다루는 복잡한 매뉴얼 습득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이전 시대 보다는 향상된 읽기 능력과 정보 기술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예컨대 덴마크는 다양한 종류의 기술, 능력, 지식이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공식적 교육과정의 필수사항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은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기존의

² 2009개정교육과정 상 보통교과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 기술, 가정, 한문, 교양, 제2외국어로 규정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수학, 국어, 과학 등 보통교육의 과목에 해당되는 코스나 모듈을 일정 부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통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합하고 있다. 이 때 보통교과는 핵심과목이나 필수과목으로 지정되는데, 여기에는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기초적인 능력을 함양시키는 역할을 보통교육이 담당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박윤희 외, 2011).

한편 이러한 운영 방식은 보통교육과 직업교육 간의 연계적, 통합적인 성격을 띠기 보다는 “병렬적인 접근(parallel approach)”(Grubb, 2006)을 취하는데, 여기에는 양자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이분적인 사고가 전제되어 있다. 직업교육에서 가르치는 교과 내용은 실기와 실습이 강조되는 반면, 보통교과는 실생활보다는 지식의 원리와 법칙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통교과를 통해 나타나는 교육적 결과는 인지적 사고력 함양인데 반해, 전문교과의 교육적 결과는 기능적인 수행의 숙달로 간주하는 것이다(강경중, 2002).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읽기는 소설이나 문학을 강조하지만 직업에서 요구되는 읽기는 텍스트 접근 방식 자체가 그것과는 다르며, 쓰기 역시 직업현장에서는 다른 종류의 메모기술이나 자료 기록과 같은 쓰기를 요구하나 학교에서 다루는 쓰기는 이와 다르다. 수학 역시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학은 절차와 잘 정련된 문제들을 강조하지만 실제 직업에서는 복잡하고 잘 정련되지 않는 문제들 다각적인 측면의 복잡한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직업교육에서 추구하는 직업적인 앎은 상황적 판단과 암묵적 이해를 바탕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being able to do) 그리고 아는 것을 적용하는 것에 방점을 두지만, 인문교육이나 보통교육에서의 앎은 앎 자체를 추구하면서 양자는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Corrigan&Fensham, 2002: 126). 따라서 보통교육에서의 앎과 직업교육에서의 앎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병렬적 접근에서는 직업교육과 보통교육을 분리시켜 학생들에게도 따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주요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보통교육과 직업교육 간의 이원론적 접근을 극복하고 양자 사이를 통합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송창용 외, 2009). 특히 경제적, 사회적인 변화로 인해 국가 간의 경제 경쟁 심화, 고용 유연성 및 직업 이동성의 증가하고, 통합적이며 광범위한 지식이 강력히 요청됨에 따라 직업교육과 보통교육의 통합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인 변화는 학생들로 하여금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며, 구체적이며 세분화된 기술보다는 평생학습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연계성 있는 기술’(소경희, 2008) 그리고 기술적, 대인관계적,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포함한 광범위한 차원의 능력(Rojewski, 2009)이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수방법 또한 단순한 피동적인 수용자로서 학생들에게 사실(facts)을 전달 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어떻게 학습하는지’ 그리고 학습을 유발시키는 호기심을 주입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통합을 시도하는 방법과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보통교육과 직업교육을 엄격하게 나누는 경계를 흐리게 함으로써 양자 사이 간극을 좁히려고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중등학교와 커뮤니티 칼리지 수준에서 양자의 통합을 위해 많은 노력이 투자되었다. 이를 위해 자체 교육 과정을 개발하거나 보통교육과 직업교육 교사들의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엔지니어링을 위한 수학”, “비즈니스 영어”와 같은 특수화된 교육과정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등 (Grubb, 2006) 직업교육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보통교과의 내용적인 부분에 반영되고 있다. 이는 보통교과에 직업적인 사례와 응용 내용을 반영하여 전문교과와의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삶과 일의 세계에서 보통교과에서 다루는 내용이 실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지를 알게 함으로써 직업 세계와의 연관성을 높이려는 접근에 해당된다. 이와 반대로, 직업교과에 보통교과에서 다루는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을 포함시켜 양자 간의 통합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기초적인 능력 함양을 위해 전문교과에서 다루는 소재들을 중심으로 보통교과의 내용을 끌어 오는 방식이 이에 해당된다. 전문교과에 작문이나 수학교과에서 다루는 기초적인 내용들을 포함시켜 전문교과 교육자료를 개발하는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Grubb et al., 1992).

그러나 보통교과에 전문교과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통합 그리고 전문교과에 보통교과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통합, 이 두 가지 통합의 방식은 여전히 직업교육과 보통교육의 경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양자 모두 ‘일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work)’의 관점에서의 접근으로 해석될 수 있다(장원섭, 2006). 즉 일을 목적으로, 일 그 자체를 가르침으로써 일을 숙달시키는 교육이 두 가지 통합의 전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보통교과에 전문교과의 내용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결국 보통교과 내에서 전문교과에서 다루는 특정한 직

무적인 부분을 다룸으로써 양자 사이 연계를 추구한다는 의미이며, 전문교과에 보통교과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 역시 비록 보통교과의 일반적인 것들을 다룬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전문교과에서는 직업분야에서 요구하는 직무 교육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두 가지 통합 방법 모두 ‘직업’을 직업생활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 요컨대 ‘직무’로 상징하고 있다. 이는 직업의 개념을 매우 협의적으로 정의한 것으로, 이에 대해 조정운(2000)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직업 개념에 대한 단순한 접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결국 보통교육과 직업교육의 통합을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지점은, ‘직업(vocation)’ 혹은 ‘일(work)’을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하는가와 관련된다. 앞서 다룬 보통교육과 직업교육의 통합에서처럼 직업을 ‘직무’ 곧 산업분야에서 요구하는 특정한 기술로 규정하는 것 외에 다른 접근은, 좀 더 광의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직업’은 단순히 직업생활만 아니라 인간의 삶 혹은 삶의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재개념화 될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방식의 직업에 대한 개념에서 벗어나 직업교육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Copa와 Plihal(1996)은 이 도전에 앞장서 통합 이슈를 광의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통합적인 주제 예컨대 일,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 그리고 책임에 관한 학습을 제시하였다.

이 두 학자의 연구와 더불어 직업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장하는 ‘신직업주의(New Vocationalism)’가 등장하였다. 신직업주의는 전통적인 직무 훈련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통합적이고 광범위한 차원의 일의 교육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 기회 창출을 강조한다. Grubb(1996)에 따르면, 신직업주의는 전통적인 직업교육과 보통교육 사이에 위치한다. 특히 전통적 직업교육이 산업 현장에서 당장 쓰일 수 있는 직무 기술을 중시했다면, 신직업주의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 같은 일반적인 기술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두며 이를 위해 다양하고 광범위한 차원의 경험을 통한 일의 학습을 주장한다. 한편, 이러한 직업에 관한 광의적 접근은 Dewey의 ‘직업’에 관한 관점과도 일맥상통한다. Dewey는 전통적인 직업교육 즉 직업 위한 교육(education for vocation)이 편협하며 이는 세부 직무를 위한 것이라며 이를 비판하고, 오히려 ‘직업’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의 과정으로서 ‘인간의 삶에 있어 열렬하고 헌신적인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편경희, 2006).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직업’은 사회적 지위나 노동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적인 의미

로 규정되는 직업 혹은 직무와 구별되는, 좀 더 우리 삶의 과정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직업주의의 직업에 대한 재개념화는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직업교육이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이라는 기능인, 기술인을 함양하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 물론, 광의적인 직업의 개념이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항 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직업교육에서 직무특수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학생들이 졸업 후 산업체에 일하게 될 때 관련 산업에서 요구하는 적어도 기초적인 수준에서의 기술과 지식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직업주의는 기존의 전통적인 직무위주의 직업교육을 통해 단순 노동자 양성을 비판하며 일반직업교육을 주장하였지만 신직업주의 자체가 신자유주의에 따른 산업 변화로 인해 새로운 노동력의 필요에 따라 발생한 ‘신자유주의 경제 논리의 대응하는’ 교육논리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장원섭, 2006).

이러한 신직업주의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직업의 개념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은 보통교육에 의미하는 바가 있다. 특히 여전히 직업을 ‘직무’로 여기며, 직업특성화고의 직업교육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특수한 기술과 지식이라는 고정적 관점이 지배적인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또한 보통교육이 시민사회에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일반적인 문제’에 ‘직업’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직업주의적인 접근은 보통교육이 고수하고 있는 직업에 대한 편협한 개념을 탈피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눈 여겨 볼만하다. 좀 더 광의적인 개념에서 직업을 바라봄으로써 보통교육과 직업교육은 결코 서로 분리되어 단절된 영역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개념을 중심으로 서로 통합될 수 있는 영역이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방법

이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직업특성화고에서 보통교과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맥락이 무엇이며 그 속에서 보통교과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살펴보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연구는 학교 현장에서 보통교과의 운영상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보통교과의 위상과 역할을 탐색해 보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교과가 운영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실험적이거나 객관적인 접근방법보다는 과정적, 경험적, 질적인 접근 방법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연구자가 연구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교과가 운영되는 실제 모습을 관찰하고 현장 내부자들의 시각에서 인지되는 교과 운영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이 연구가 직업특성화고에서 보통교과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맥락적인 부분에 주목하고 내부자의 시각에서 인지되고 있는 보통교과 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이다.

물론, 설문조사방법을 활용하여 직업특성화고의 보통교과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연구물도 있다(김선태 외, 2003; 이용순 외, 2005; 황우형 외, 2009). 그러나 이들 연구 결과를 통해서는 직업특성화고에서 보통교과가 제대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 정도만 파악할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보통교과 교육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는 이들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방법과 연구주제 상의 문제에서 기인된다. 설문조사 방식은 주로 연구 참여자에게 4-5개 정도의 이미 설정된 선택지 내에서 답을 고르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한다. 이는 설문지의 선택지 이외의 연구 참여자가 생각하는 문제의식에 관한 측면은 포착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반면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할 경우, 연구자가 직접 현장으로 들어가 교육적 맥락, 연구 참여자의 행동과 신념에 대한 서술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Glesne & Peshikin, 1992) 기존의 설문조사방법 위주의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는 다른 측면을 드러내거나, 혹은 기존의 문제에 대

해 보다 면밀한 설명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점에 주목하여 이 연구는 질적 연구방식을 선택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부분들, 혹은 포착하였더라도 선언적인 혹은 피상적인 지적에 머물렀던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드러내 보고자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부 연구물들에서 직업특성화고 보통교과 교육의 문제가 지적되었지만, 왜 보통교과가 그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는지와 관련된 다양한 맥락적인 측면에서의 검토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는 현장 내부자의 관점과 내부 생산 자료들(artifacts)을 수집하여 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사실과 관점들을 탐색하는 질적 연구방법이 필요함을 의미하는데, 이제까지의 연구물에서는 이 점이 간과되어 왔다. 따라서 이 연구는 면담을 통한 내부자의 시선, 현장에서 생산된 다양한 자료들, 수업 관찰을 통한 연구자의 시선과 같이 다양한 관점과 자료를 통해 보통교과를 둘러싸고 있는 맥락적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통교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낱알의 문제로 바라보기 보다, ‘직업특성화고’만의 복합적인 배경 속에서 보통교과를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함으로써 직업특성화고에서의 보통교과 교육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나마 확장시킬 수 있었었다는 점에서 질적 연구가 적절한 연구 방법론이었다.

2. 자료 수집

직업특성화고에서 보통교과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자는 2011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면담, 수업관찰, 현지자료를 통해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구체적인 자료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면담

면담은 2011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9 명의 직업특성화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면담의 횟수와 시기는 연구 참여자 별로 다르게 진행되었으며 적게는 2회에서 최대 13회까지 개별 면담 혹은 집단 면담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참여자 별 면담 횟수를 살펴보면, 고우리 교사 13회, 한길로 교사 4회, 현상태 교사 4회, 김신성 교사 2회, 봉우람 교사 5회, 고

찬영 교사 5회, 임은상 교사 2회, 이진실 교사 3회, 박시은 교사 5회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승인 하에 녹음기로 녹음하였고 사전 계획 없이 진행된 면담의 경우에만 연구자가 현지노트에 기록하고 면담기록지를 따로 작성하여 보관하였다. 각 면담은 현지 사정에 따라 1회 면담 시 최소 30분에서 최대 2시간 동안 면담을 진행하였고 가급적 면담이 끝난 후 일주일의 경과하기 전에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녹취록에는 반드시 참여자의 간략한 인적사항, 소속학교, 면담 전 상황에 대한 묘사를 포함시켰다. 면담 장소는 연구 참여자와 상의하여 학교 내 공간과 학교 외부 공간에서 진행하였다. 면담의 방식은 직접 만나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되, 참여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전화, 이메일, 모바일 문자, 메신저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초기 면담에서는 교사 개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들과 연구자가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 위주로, ‘반구조화된 면담’의 형태로 개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이전까지 수집된 자료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질문들을 바탕으로 귀납적으로 추출된 질문들과 이 연구의 연구문제와 관련된 질문들을 엮어 ‘반구조화된 면담’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아래 표는 면담의 주제를 정리한 것이다.

<표 III-1> 면담 주제

구분	면담 주제
초기 면담 (개방적 구조)	1. 인적 사항, 교직경력 2. 교직의 동기 3. 학교의 현재 상황 및 문제점
추가 면담 (반구조화)	1.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특징 2. 교육과정 편성 과정의 특징 3. 직업특성화고 내에서 담당 교과 수업의 특징 4. 직업특성화고 내에서 보통교과의 필요성 5. 일반고와의 차이점 6. 보통교과 교사로서 어려운 점 7. 보통교과가 직업특성화고에서 직면한 문제의 원인

나. 수업 관찰

이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자는 연구 참여 교사들의 수업을 관찰하였다. 특히 수업관찰의 경우, 직업특성화고에서 보통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위주로 진행하였는데 이는 직업특성화고에서 보통교과가 운영될 때 나타나는 특징을 포착하기 위해서였다. 관찰된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 하에 녹음하였고 연구자는 Spradley(1980)의 참여관찰 유형 중 중간 수준을 유지하였다. 연구자는 최대한 수업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교실 상황을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를 두고 연구주제를 생각하며 현장메모를 기록하였다. 특히 연구자는 교사의 발문과 학생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현지노트에 기록하여 두었다가 이를 바탕으로 관찰기록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업 관찰 직후에는 교사의 사정에 따라 면담이 가능한 경우 현지노트의 내용에 의거하여 질문사항들과 관찰 후기를 공유하였다. 특히 수업 관찰 후 진행된 면담은 연구 참여자들과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였고 직업특성화고에서의 보통교과의 현재 상황에 대해 다양한 논의 진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수업 관찰은 연구자 직접 교실에 들어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되, 교사와 학교의 여건에 따라 연구 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수업녹화자료를 전달받아 수집한 경우도 있다. 또한 직업특성화고의 보통교과에 대한 연구자의 문제의식이 공유된 참여자의 경우 수업 관찰을 적극적으로 허용하였지만, 일부 참여자들은 면담에는 적극적으로 응하였으나 수업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 별 수업 관찰 횟수는 0-5회로 차이가 있다.

다. 현지 자료

현지자료는 연구자가 현장 방문 때마다 틈틈이 수집하였다. 학교교육과정 계획서, 교직원회의 유인물, 수업자료, 수행평가지, 수행평가 활동자료, 사진자료, 학교 홍보 동영상, 공문자료, 학습지, 교재 등 현장에서 생성된 다양한 자료들이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들 중 일부는 연구 참여자가 공유를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연구의 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으며 반드시 참여자의 동의가 있는 자료만 활용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문서자료는 과소평가 되는 측면이 있지만, Merriam(1988)이 언급하였듯이 문서자료 역시 면담자료만

컴 삼각측정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보통교과가 직업특성화고 교육과정에서 편성되는 과정을 살펴볼 때, 수집된 문서자료는 이를 이해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3. 연구 절차

가. 연구 참여자 선정

연구의 일반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전역의 직업특성화고 보통교과 담당 교사들을 두루 만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연구자는 여러 가지 연구의 여건상 연구 참여자를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이 연구의 목적과 관련된 ‘의도적 선택’(조용환, 2008)을 통해 ‘정보가 풍부한 사례’를 가진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나장함(2012)에 따르면 질적 연구는 소수의 샘플에 대해 상세하고 풍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논리적인 샘플링 전략이 필요하며, 이때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기법은 총 16가지³ 정도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Springer(2010) 역시 다양한 샘플 선정의 기준으로 임의적 샘플링, 비율적인 계층적 샘플링, 클러스터 샘플링, 시스템 샘플링, 편의적 샘플링, 목적적 샘플링, 할당 샘플링 등 다양한 샘플 선정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샘플 선정의 방식은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를 선정할 때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였다.

이 연구가 2011년 하반기부터 시작하여 2013년 4월까지 중장기적으로 진행되면서 연구자는 여러 참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참여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연구의 시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초기 연구시작 단계에서 연구자는 ‘편의적 샘플링’에 의거하여 연구 참여자를 물색하였고 연구자의 지인의 소개로 연구 참여자 봉우람(가명)⁴교사를 만났다. 봉교사는 전

³ 16가지 기법은 극단적 사례 샘플링, 강렬한 사례 샘플링, 최대 차이(변인) 샘플링, 동질적인 샘플링, 전형적 사례 샘플링, 유층 의도적 샘플, 중대한 사례 샘플링, 스노우볼 샘플링, 준거 샘플링, 이론 기반 샘플링,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사례 샘플링, 기회적 샘플링, 랜덤 의도적 샘플링,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례 샘플링, 편의적 샘플링, 혼합 의도적 샘플링이다.

⁴ 연구 참여자 모두의 이름과 소속 학교명은 가명 처리하였음을 밝혀둔다.

기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로, 연구자는 직업특성화고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봉교사를 만났다. 봉교사는 교직경력 9년 차로 중부고등학교에서 기술교과를 가르치고 있었으며, 학교 행정에서 여러 다양한 실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 직업특성화고가 직면한 문제점과 학생들의 실태를 상세히 알고 있었다.

이후 연구자는 지인의 소개로 고우리 교사를 알게 되었으며 고우리 교사는 연구 당시 기사랑고등학교에서 과학교과를 가르치고 있었다. 고우리 교사는 서울의 우수한 사범대학 출신의 교사로, 처음 발령지가 기사랑고였으며 연구자를 만났을 당시 기사랑고등학교에서 교직 경력 3년 차를 맞이 하고 있었다. 연구를 함께 진행하던 당시 고우리 교사는 일명 ‘문제아반’을 맡아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며 자신이 담당한 보통교과의 정체성과 의미에 혼란을 겪고 있었다. 상당히 바쁘고 힘든 일과 속에서 연구자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었으며, 여러 차례의 수업공개와 학생들 면담을 적극적으로 주선해 주었다.

연구가 중반기에 이르러서는 연구자가 연구 현장에 자주 방문하게 되면서 주변 교사들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었다. 그들과 이야기하며 융통성 있게 연구와 관련된 참여자들을 ‘기회적으로 선정’ 할 수 있었다. 이때 만난 참여자는 한길로 교사로 봉우리 교사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수학교사이다. 한교사의 총 교직경력은 25년으로 중학교와 일반고에서 오랫동안 수학을 가르쳤으며 기사랑고에서 수학은 3년 째 가르치고 있다. 한교사는 연구자가 봉우리 교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초기 시점부터 연구 주제에 대해 흥미를 보였으며, 직접적으로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였을 때 선뜻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며 이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연구 중후반기에 연구자는 또 다른 지인 소개로 동부고등학교에 재직중인 김신성 교사를 만나 함께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신성 교사는 고우리 교사와 유사한 교직 배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현재 서울 소재 대학의 과학교육과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김신성 교사는 연구 초반부에 만난 고우리 교사와의 유사한 배경으로 인해 당시 과학교과가 직업특성화고에서 직면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난 연구 참여자였다. 교직 경력 3년 차인 김신성 교사는 현재 재직 중인 동부고가 첫 발령지로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과학교과가 어떠한 의미를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었으며 직업특성화고 시스템과 학생들의 학업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점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연구 중후반기에 연구자는 직업특성화고 내에서 전문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 경우 또한 연구자가 직업특성화고라는 특수한 맥락의 차이 그리고 보통교과의 특성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하고자 한 ‘의도적인 선정’에 해당된다. 현상태 교사와 임은상 교사가 여기에 포함된다. 현상태 교사는 15년 교직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사랑고에 10년 째 근무하고 있다. 현상태 교사와의 만남은 연구자가 평소 가깝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연구를 위해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 기사랑고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연구자는 봉우리 교사와 초기 연구를 진행할 당시에는 현교사를 알지 못했으며 추가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었다. 현상태 교사는 15년 째 교직에 몸담고 있으며 그 전에는 기업체에서 근무하여 오랜 현장 실무 경험을 지닌 교사이다. 직업교육에 대한 열의가 뛰어나 미국 유학을 통해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학교에서도 행정부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임은상 교사는 교직경력 10년 차로 서부고등학교에서 기술교과를 5년 째 담당하고 있으며 유임을 생각하고 있었다. 대학 시절 교육학을 전공하다가 컴퓨터공학 분야로 전과하여 교사 자격증을 취득 후 교사가 되었으며 서부고등학교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일반계고에서 전산과목을 가르쳤다. 임은상 교사 역시 학교에서 중추적인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있어 직업특성화고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연구의 후반기에는 ‘스노우볼 샘플링’, 즉 “그것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디에 가야하고, 누구와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Patton, 2002)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연구 참여자를 물색하였다. 이와 더불어 연구의 방향과 목적이 좀 더 상세화되고 명확해지면서 ‘준거 샘플링’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 때 샘플링 기준은 1) 서울지역 직업특성화고에서의 교직 경력 3-10년 혹은 그 이상, 2) 직업특성화고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보통교과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는 경우, 3) 보통교과 지도 방식이 기존과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노력을 보이는 교사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샘플링 준거에 의거하여 서부고등학교의 박시은 교사와 이진실 교사, 남부고등학교 고찬영 교사를 연구의 참여자로 만나게 되었다.

박시은 교사는 현재 교직경력이 23년 차로, 현재 재직 중인 서부고등학교가 직업특성화고에서 가르친 첫 경험이며, 이 전에는 일반고에서만 국어를

가르쳤다. 박교사는 국어 교과서의 텍스트와 학생들의 삶이 유의미하게 접목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교과연구회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같은 학교 수학과 이진실 교사는 역시 교직경력 20여 년의 베테랑 교사이다. 이교사는 서부고등학교 이 전에는 중학교, 일반고에서만 수학을 가르쳤다. 이교사는 그동안 일반고에서 사용한 방식 즉 문제풀이에 집중하는 방식과는 다소 다르게 기초와 원리를 바탕으로 수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수학적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수업을 구상 중에 있었다.

마지막으로 남부고등학교의 고찬영 교사는 남부고가 그의 첫 발령지였다. 고교사는 서울의 유수한 사범대학에서 국어교육과 사회교육을 동시에 전공하였다. 현재 교직경력 3년 차인 고찬영 교사는 매너리즘에 빠지기 않기 위해 그리고 교사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었다. 특히 고교사는 국어교과가 직업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여, 다양하고 흥미로운 수업을 준비하는 데에 열심을 다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기술한 9명의 연구 참여자 외에도 연구자는 십 여명의 직업특성화고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과 현재는 일반계고에 재직 중이나 직업특성화고에서 가르쳤던 경험이 있는 다수의 교사들, 특정 교과 교육과정 개발 맥락을 잘 알고 있는 교사 등 이 연구와 관련을 맺고 있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였다. 이 연구에 관해 조언이나 아이디어를 주기를 희망하지만 직접적으로 만나기 어려운 경우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회신을 주고 받았으며 직업특성화고에서의 보통교과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들을 최대한 들어보고자 노력하였다.

주요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정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 <표 III-2>과 같다. 연구 참여자들의 이름과 근무지는 모두 가명 처리하였고, 직업특성화고는 다양한 유형으로 예컨대 공고, 상고, 농고 등과 같이 분류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특정 학교의 경우 그 특성이 이름을 통해서 명백히 드러남으로써 연구 참여자와 참여자의 근무지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을 밝혀 둔다.

<표 III-2> 연구 참여자 리스트

이름	성별	나이	근무지(서울)	담당교과
고우리	여	20대후반	기사랑고	과학교과
한길로	남	40대후반	기사랑고	수학교과
현상태	남	40대후반	기사랑고	공업교과
김신성	남	20대후반	동부고	과학교과
봉우람	남	30대중반	중부고	전기교과
고찬영	남	30대초반	남부고	국어교과
임은상	남	30대후반	서부고	전산교과
이진실	여	40대중반	서부고	수학교과
박시은	여	40대중반	서부고	국어교과

나. 자료의 분석 및 해석

질적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은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체계화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는 질적연구의 자료분석이 수많은 자료 속에 숨겨져 있는 아이디어, 개념, 범주를 알아내고 이를 배열하며 조직화하는 과정으로, 자료 내에 잠재된 흥미로운 사건, 특징 구문, 행동 혹은 하나의 과정에 대한 단계를 찾아내고 이들을 라벨링 하여 서로 구분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Given, 2008). 연구자 역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연구자가 탐색하고자 한 연구 문제들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자료 분석 과정을 통해 의미 있는 사건, 특징, 과정 등을 찾아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이는 단계적이거나 선형적인 과정이기 보다, 처음 분석과정에서 추출된 주제들과 이 후 수행된 반복적인 분석과정을 통해 새롭게 추출된 주제들 사이를 왕복하며 연구주제와 문제의식에 적합한 주제들을 찾아 계속적으로 재배열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이었다(Sherwood, 1997). 이 연구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분석 방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자료의 분석을 위해 수집한 면담자료, 관찰자료, 현지자료를 모아 연구 참여자와 연구 대상 학교 별로 정리하였다. 정리된 자료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앞서 연구자는 연구 계획서를 다시 개관함으로써, 연구의 목적과 연구 문제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정리된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적으로 읽으며 보통교과가 직업특성화고에서 운영될 때 나타나는 특이점이 무엇인지

에 주목하여 핵심적인 주제를 추출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학교교과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교사, 학생, 학교(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라는 점(김두정, 1996; 박창언 외, 2010; Snyder, et al., 1992)에 주목하여, 이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핵심적인 주제들을 추출하려고 하였다. 사실, 세 가지 요소는 연구 계획서 단계에서는 주목하지 못한 측면으로 당시의 연구 문제는 이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분석 과정에서 주목한 세 요소가, 직업특성화고의 보통교과 운영을 드러내는 데 핵심적인 측면이라는 점을 발견함에 따라, 세 가지 요소에 따라 보통교과가 직업특성화고에서 운영 방식의 특징을 묻는 방향으로 연구 문제를 재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된 연구 문제에 의거하여 자료를 재분류 하면서 연구자는 직업특성화고 학생, 교사, 학교와 관련된 부각되는 주제들을 각각 2가지 정도로 구분하였고, 이러한 주제들을 포괄할 수 있는 어휘나 어구를 찾아 분류된 자료의 타이틀로 삼았다.

앞서 도출한 분석 과정을 통해 드러난, 직업특성화고 보통교과의 맥락적인 특징들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또 다른 연구 문제에 의거하여 다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때 중점적으로 추출해내고자 한 부분은 교육과정 측면 즉 편성 과정과 운영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징이었다. 구체적으로, 보통교과의 위상 즉 보통교과가 다른 교과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무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주목하여 자료를 분류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다양한 자료들 사이 연결고리들을 찾아 연결 짓고 이를 대표할 수 있는 항목들로 재배열하였고, 나머지 범주들은 선택된 항목들의 하위 범주로 포함시키면서 일목요연하게 재배열하였다. 특히 자료들을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자가 속한 학문 공동체의 논의에 비추어 교육과정적인 특징들을 포착하려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추출된 직업특성화고의 교육과정 상에서 드러난 보통교과의 특징적인 부분은, 우선 위상 면에서 ‘주변적’, ‘단절적’이라는 키워드를, 역할 측면에서는 ‘대입 준비’, ‘장기적 삶’, ‘기초학력증진’라는 키워드를 상위 키워드로 추출하고 나머지 자료들은 이에 따라 분류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질적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이 수집된 자료들을 이리저리 나누고 쪼개면서 의미 있는 결과들을 도출하는 과정이라면, 해석은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 현장을 이해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 연구는 직업특성화고에서 보통교과를 둘러싸고 있는 맥락의 특징적인 측면과 교육과정 운영 면에서 보통교과의 위상과 역할의 특징을 도출하여 이것이 주는

의미에 대해 고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하나의 관점, 이론, 자료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연구의 내적 오류를 줄이기 위해 면담자료, 수업관찰 자료, 현지자료, 문헌자료를 비교, 검토하는 삼각검증법을 활용하였다(Denzin, 1989). 그리고 학술적이거나 대중적인 포럼에서 논의되는 이슈들을 참고하여 이 연구를 통해 드러난 결과가 직업특성화고의 보통교과 교육과 관련하여 어떠한 점에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IV. 직업특성화고의 보통교과를 둘러싸고 있는 맥락

직업특성화고 교육의 주된 목적은 고등학생들에게 특화된 직업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산업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다. 특히 국가교육과정상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직업특성화고는 그 유형을 농·생명산업계, 공업계, 상업·정보계, 수산·해운계, 가사·실업계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직업특성화고가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차원의 직업교육에 주목하기 보다는 특정 산업 분야의 직업인, 다시 말해 특정한 기술과 지식을 연마한 산업 인력 양성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직업특성화고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직 사회로 발을 내딛기 이 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고등학교의 한 유형이라는 특징도 지니고 있다. 이점은 직업특성화고가 고등학교 수준의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직무 숙달을 주된 목표로 삼는 ‘직업양성소’와는 다른 성격의 교육기관임을 의미한다. 즉 직업특성화고는 직무를 숙달시킨 기능인 혹은 기술인을 양성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장래의 삶을 ‘잘 살아가는’ 인간을 교육하는 ‘학교’이기도 하다. 따라서 직업특성화고의 교육과정은 전문교과와 보통교과가 함께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직업교육이 특정 산업 기술을 연마한 기술자 양성에만 주목하지 않는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전문교과가 직업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다면 보통교과는 교육의 일반성, 즉 학생이 속한 사회에서 직면하게 되는 삶의 보편적인 문제를 다룸으로써 시민사회의 성숙한 구성원을 길러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직업특성화고의 내외적인 환경의 변화로 인해 직업특성화고 보통교과의 위상과 역할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앞서 언급하였듯이 직업특성화고에서 보통교과를 조명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단순히 선언적인 수준에서 혹은 막연한 추측 속에 보통교과의 위상과 역할을 상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재 직업특성화고에서의 보통교과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보통교과의 위상과 역할을 탐색하기에 앞서 직업특성화고에서의 보통교과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맥락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보통교과가 직업특성화고에서 진공상태로 존재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맥락들과

엄혀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그 위치와 역할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점을 드러내기 위해 이 연구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교실 수업 관찰과 현지 자료 수집을 통해 보통교과를 둘러싸고 있는 직업특성화고의 학생, 교사, 학교라는 세 가지 맥락적인 측면을 살펴보았다.

1. 학생의 특징

이 절에서는 직업특성화고를 구성하고 있는 교육주체인 ‘학생’에게서 어떠한 특징적인 측면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직업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라는 특수 맥락에 존재하는 학생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드러내 보는 것이다. 아래는 연구자가 이 연구를 통해 포착한 직업특성화고 학생의 특징적인 측면을 정리한 것이다.

가. 학생의 다양한 진로 선택

직업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 선택이 대학진학으로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최호승 외, 2012; 박동열 외, 2012). 2000년 이후 직업특성화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의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학생들이 취업보다는 진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고등학교 수준에서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직업특성화고 정체성의 위기가 제기되기도 하였다(이기형, 2009).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 들어가 연구를 진행하여 본 결과, 연구자는 직업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가 선행 연구물들의 지적처럼 ‘진학 일변도’로 흐르고 있지는 않았다. 진학 이외에도 학생들은 여러 다른 진로를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장 일반적으로, 그리고 연구물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다. 『교육통계연보』에 나온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직업특성화고 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이 200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며 2010년까지 71.1%까지 이르렀다. 70-80년대 직업특성화고 입학은 대학 진학보다는 산업체로의 취업이 주를 이루었다면, 2000년 이후 산업 및 노동구조의 변화와 고등교육에 대한 요구 증가로 인해 직업특성화고 학생들의 진학률이 급증하게 되었다. 또한 수능에서 직업탐구영역이 신설되고 직업특성화고 학

생들의 동일계 대학 진학의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었다. 연구자가 방문한 학교들 역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많은 70%정도에 해당하는 학교 한 곳, 나머지 학교들의 경우는 40-50% 정도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봉우람: 우리 학교는 한 반정도? 한 40-50% 정도가 대학에 가는 것 같아. 취업을 했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저 대학갈래요 하는 애들도 있고.

연구자: 40-50%정도? 더 높을 줄 알았는데...

봉우람: 학교별로 다르지만 그렇게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연구자: 애들은 그럼 수능 준비를 해요?

봉우람: 자기네들이 알아서 준비를 하는 편이지. 학교에서는 국민공통 교육과정 이후 따로 수능을 위해 특별히 뭘 더 하지는 않지. 방과 후나 여름에 잠시 관련 프로그램 몇 강좌 여나? 주로 내가 알기로는 학원도 많이 다니고 따로 준비하는 것 같아. 좋은 대학 가려는 소위 명문대에 진학하려는 일부 애들은 따로 준비한다고 그러더군.

연구 참여자들은 동일 계열의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 혹은 전혀 계열의 다른 전공으로 대학을 진학하려는 학생들까지 대학진학을 염두에 두고 이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존재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김종숙과 곽태열(2010)의 연구에서도 도출되었듯이, 직업특성화고 학생들이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사유가 ‘좋은 직장 취직’ 혹은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 풍토’라는 점과 연관이 있었다. 이는 대학 졸업 후 취업하는 곳과 비교하였을 때,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는 곳의 환경과 주변의 시선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하고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직업특성화고의 ‘특성’을 살려 취업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었다. 특히 최근 2-3년 간의 정부의 고졸 취업 정책에 따라 다방면의 지원이 증가하고 더불어 고졸 취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면서 2011년부터는 직업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이 차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임은상: 예전과 다르게 애들이 분위기나 진로 같은 것을 생각하는 애

들이 상당히 늘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와서 더 좋은 취업, 대학도 가기 전에 그것보다 안정된 직업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는 것 같아요.

연구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네요.

임은상: 그렇죠.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최근 정부 시책이 취업을 장려하잖아요. 좋은 자리들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애들이 어디 공사나 어디 은행권 어디 기업 IT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 후배들도 그것을 보고 들어오는 애들이 생기는 거죠.

물론, 임은상 교사가 언급한 것처럼 ‘좋은 (취업)자리’가 아니더라도 일찍부터 대학진학보다는 중소기업체 취업을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연구자는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학보다는 취업을 생각하고 있다는 학생들도 여러 차례 만날 수 있었다. 일반고에 지원하여 대학에 진학할 수 있지만 이보다는 취업을 원해서 스스로 직업특성화고에 진학하였다는 학생들이 예전에 비해 그 비중이 늘고 있었다. 학생들이 대학진학보다 취업을 생각하는 이유는 다양했지만 “머리 아프게 더 공부하고 싶지 않다”, “취직해서 빨리 돈을 벌고 싶다”, “빨리 자리를 잡고 싶다” 등을 주로 언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 따르면, 직업특성화고 학생들 일부는 대학진학과 기업체 취업 이외에도 군대에 입대하거나 혹은 군장교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창업이나 자영업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연구자: 지난 번 면담에서 말씀하셨듯이 여기 졸업하고 나가면...전문 교과 교육도 받고 보통교과 교육도 받은 아이들이 여기서 나가잖아요. 졸업하고 나서 아이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더라고요.

현상태: 저희 학생들이 다양하게 진출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취업해서 기업체에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애들도 있고. 일부 아이들 중에는 사업을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기계 쪽 관련 아예 사업체를 낸 친구들도 있구요. 아니면 체질적으로 리더십이 있고 그런 애들은 군 하사관...기술병으로 빠지기도 하구요.

진학, 취업, 기타 진로를 선택하는 학생들 이외 소수의 인원이지만 ‘무직’의 경우도 있었다. 한 연구 참여 교사에 따르면 “불편한 진실”이지만 직업특성화고를 졸업하고 난 후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학생들이 실제로 상당수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학교 측에서 취업자리를 알선하여 실제로 취업을 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직장을 그만 두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혹은 아예 직업을 갖지 않는 학생들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 자료에도 2009년 전체 직업특성화고 졸업자 중 7.5%가 무직자에 해당되었다(김종숙 외, 2010).

대학진학이든, 기업체 취업이든 혹은 그 외 다른 진로를 선택하든 직업특성화고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일반고 학생들 대부분이 대학진학이라는 한 가지 길을 선택하는 경우와 달리 직업특성화고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방면으로 학생들이 자신들의 진로를 선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학생의 부진한 기초학업능력

‘학력’의 개념은 ‘지식, 기능, 관심, 의욕, 태도를 포함한 살아가는 힘’, ‘학습능력’, ‘학습결과’등과 같이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佐藤学, 2000). 그러나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학력’의 개념은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에 대해 학생들이 도달한 정도를 나타내는 성취(achievement)를 의미한다. 즉 직업특성화고 학생들의 학력의 의미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에 대해 도달한 성취수준을 뜻한다. 이러한 성취로서의 학력의 개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연구자가 방문한 다섯 곳의 학교 중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서 학력 부진을 겪고 있는 학생 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직업특성화고의 학생선발이 중학교 내신 성적에 의거하여 80~90%에 분포되어 있는 학생들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연구 참여자들은 중학교 시절 기초과목에 대한 학력이 일반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였다.

연구자: 여기서 공부하는 전문교과 내용들 수학하고 과학하고 꽤 관련이 많지 않나요?

한길로: 음. 관련이 없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심각해요. 수준이...

연구자: 얼마큼…?

한길로: 심각한 애들은 통분을 못한다던가…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안 한거죠. ‘ $1/2+1/3=1/5$ 이다’ 이렇게…그런 수준의 아이들이 지금 한 반 정원이 25명인데 못해도 5명은 넘을 듯해요. 더 많이 나오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국어과를 담당하고 있는 고찬영 교사도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족에 대해 지적하였다. 수업시간에 아주 기초적인 어휘부터 다루지 않으면 학생들이 문학 텍스트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고교사의 말에 따르면, 고등학생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어휘나 배경지식이 학생들에게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고찬영: 그러니까 되게 (교과서에 나온) 기초적인 어휘 풀이부터 세세하게 해줘야 되고. 내용 파악이 잘 안되니까요. 하나하나 되게 꼼꼼하게 봐줘야 해요. 애들이 배경 지식 자체가 거의 없으니까요.

(중략)

애들이 되게 기초적인 것부터 단어라든지, 문장은 읽지만 그 문장의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글자 읽는 거랑 문장의 의미 파악하는 거랑 되게 다르잖아요. 이게 되게 달라서 그 문장의 의미도 하나하나 다시 설명해줘야 되고…

연구자는 연구 참여 교사들의 수업을 관찰하면서 학생들의 이와 같은 기초학력부족에 따른 학력 부진 현상을 여러 차례 목격할 수 있었다. 예컨대, 수학과목에서 조금만 복잡한 수식, 과학과목에서 조금만 복잡한 이론을 교사가 제시하여도 학생들은 책상에 바로 엎드려 버는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인해, 교사들은 “쉬운 것들” 또는 “아주 기초적인 것들”로만 수업 내용을 구성하여 가르쳐야 그나마 수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난이도가 있거나 학생들에게 도전을 주는 과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언급하였다.

직업특성화고에 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증가하고 사회문화적 기대와 시선이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되면서 직업특성화고에도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기

초학습능력을 갖춘 학생들의 진학 비율이 증가하고는 있다. 그리고 실제 일부 연구에서는 직업특성화고를 선택한 학생들의 진학 동기가 ‘학생이 원하던 분야’가 ‘중학교 내신 성적’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경우도 있다(오석영 외, 2012).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직업특성화고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은 낮은 편이었으며, 연구자가 연구를 실시한 학교들 대부분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다수의 연구 참여자가 지적하였지만, 직업특성화고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의욕 부족’이 학력 부진과 관련이 있었다. 참여 교사에 따르면 아무리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려고 노력하지만 학생들이 따라와 주지를 않는다는 것이다.

고우리: 제가 아무리 새로 학습지를 준비하고 영상을 들어 주고...뭘 해도...가장 어려운 점은 의욕,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학교에 꾸역꾸역 나오거나 아니면 학교 나오기 싫은 애들은 쉽게 흔들려서 놀러 가버리고 학교 안 나오는 게 다반사예요.

고찬영 교사 역시 이와 비슷한 사항을 언급하였다.

고찬영: 여기 애들은 의욕이 좀 없고, 귀찮아 하는 거 엄청 많고...그것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과제를 내줘서 할 시간은 있는데 되게 귀찮아 하고 그리고 과제 안 하는 게 습관인 애들도 많고요. 그것을 뚫는 것이 지금 그런 애들의 귀찮음 같은 것을 뚫는 것이 제게 화두죠.

학생들의 학력부진은 비단 직업특성화고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다. 일반고에도 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은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학력부진의 문제가 직업특성화고 학생들의 특징적인 부분으로 제시된 데에는, 직업특성화고의 ‘다수의 학생들’이 학력부진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 대상 학교들에게서 한 곳을 제외하고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력과 관련된 상황은 이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2. 교사의 특징

직업특성화고에서 보통교과가 어떠한 위상과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맥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사는 교과를 운영하는 핵심 주체로서, 교사가 추구하는 신념, 가치, 태도에 따라 학교 내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교과의 위치와 역할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Synder et al., 1992).

가. 학교에 대한 비애착적인 태도

연구자는 연구를 진행하며 만난 연구 참여자들, 특히 젊은 교사들로부터 직업특성화고에서 보통교과를 맡고 있는 교사들의 특징적인 몇 가지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에 따르면 보통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들 가운데 “쉬러 오는” 교사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물론 모든 직업특성화고 보통교과 교사가 이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르지만 여러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부분이었다.

인문계에 계신 선생님들이 쉬러 오시는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담임 안 하겠다. 특히 나이 많은 선생님들은 이제 담임 안 하시고...여기서 정년 맞이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쉬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여기서 있다가 견디기 힘들어서 명퇴 진짜 많이 하세요.⁵

직업특성화고의 젊은 교사들은 경력이 많은 보통교과 교사들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적당히 계시다가 정년을 맞으려는” 혹은 “잠시 들렀다가 쉬시다가 다시 가지려는” 등 직업특성화고 보통교과 교사들에게 직업특성화고는 ‘경유지’와 같은 곳이라고 하였다. 임기홍(2011:17)의 연구에서도 보통교과 교원의 열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일반계 고교를 돌다가 한 번 쯤 거쳐 가는 교사들에게 실업계고는 잠시 쉬었다가 가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하였다.

⁵ 이 절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요청과 정보보호를 위해 참여자들의 이름(가명)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젊은 교사들 역시 학교에 남아 모종의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았다.

요즘 떠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꾸 이 아이들에게만 맞춰 가르치다보니 나중에 인문계 가서 혹은 상위 애들 가르칠 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개네들한테 깊이 있는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니까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학교 시스템 안에서 자꾸 소외되고 변화 발전 없고...

그러나 물론 일부 연구 참여 교사들 중에는 새로운 교수법과 교과 내용을 시도한 경우도 있었다. 기존의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 이외에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는 주제로 가르치려는 노력을 보였던 교사들도 있었다. 이들은 새로운 교재를 자체 제작하거나 외부의 교과 연구회에 가입하여 새로운 교수법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시도를 두고 기존 보통교과 교사들과 충돌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면서 점차 학교의 '익숙한 방식'과 '룰'을 그대로 따르게 된다고 고백하기도 하였다. 보통교과 교사들은 새로운 내용을 가르칠 수는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평가에 있어서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평가를 시행해야 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어 교사 일인의 노력으로는 결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직업특성화고에서는 보통교과 교육의 새로움을 시도하다가 결국 외적인 환경에 의해 포기하고 순응하는 교사들이 있었으며, 혹은 전근을 가는, 일명 '탈출'을 시도하는 일부 교사들도 있었다. 실제로 5년 근무기간을 채우기 전에 일반고나 특수목적고로 전근을 신청하여 '탈출'한 교사들도 있었다.

학교가 상당히 인문교과 교사들에게 비민주적이고...옛날 식의 평가...아주 갑갑해요. 그래서 인문교과 선생님들이 많이 떠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배울 것이 없다고. 교과로, 교사로서의 성장이 있다면 수업이 되게 크잖아요. 성장을 하는 데에 있어서...그런데 여기는 성장하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고 결국 떠나가시죠.

직업특성화고 교사들은 직업특성화고 안에서 보통교과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보통교과 교사를 만나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보통교과 교사들은 ‘휴식’을 취하거나 혹은 변화와 발전이 부족한 학교에 염증을 느끼고 학교를 ‘탈출’하려 한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직업특성화고 보통교과 교사들을 ‘학교에 대한 비애착적인 태도’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연구 참여자들에 따르면 특히 수업연구의 경우, 이에 몰두하는 보통교과 교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나. 학창시절의 모범적인 배경

직업특성화고에서 보통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일반고나 특수목적고를 졸업 후 4년제 대학을 나와 국가임용시험을 통과하여 교사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전문교과 교사 역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전문교사에 임용되지만, 해당 산업분야의 전문인, 즉 현장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를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하기도 하여 보통교사와는 다소 다른 배경과 경로로 교사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보통교사의 경우, 대부분이 유사한 경로를 통해 교사가 되고 있었다. 이는 보통교사들과의 면담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특히 연구 참여 교사들의 과거 학창시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보통교사들은 ‘공부를 좋아하고’, ‘착한 학생’, ‘열심히 하는 학생’과 같은 동일 주제가 반복되어 나타났다.

연구자: 선생님께서는 왜 수학이 좋으셨어요?

한길로: 하다 보니까 재미있었어요(웃음). 어려운 거 못 풀고 그러잖아요. 못 푸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연구자: 푸는 재미?

한길로: 풀고 싶은 재미(웃음). 풀고 싶은 마음. 틀리든 맞든 끝내 풀 수도 있고 못 풀 수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붙잡고 고민하고 또 해보고. 기본적인 개념 같은 것을 뒤져 보고...뭐...그런 과정이 재미있는 거죠. 재미 있으니까 시간을 전부 다 활용한 거죠. 열심히 했죠.

보통교사들은 대체적으로 자신이 전공한 교과에 대해 좋아했고 학창시절에

도 열심히 공부하였던 학생이었다. 그러한 배경은 ‘직업특성화고’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보통교사로 하여금 ‘괴리감’, ‘문화적 충격’을 경험하게 하였다.

고우리: 예상 밖의 행동들을 애들이 너무 많이 하고요…개념이 없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이해하기 진짜 많이 힘들었죠…많이…학생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수업 상황에서) 저는 수업 때 집중해서 죽 따라오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도입을 들어가 중간에 ‘아, 그렇구나’ 느끼고 이렇게 되게…맥락이 있는 것을 좋아해서…기대하기는 애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따라와서 내 의도대로 내가 물어보는 거 대답하면서 ‘아 그랬구나’ 를 느끼길 바랬죠(즐거워하는 말투).

연구자: 하지만?

고우리: 하하…그런 애들은 많지 않죠. 집중력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내가 물리를 좋아하는 나만큼 집중하지는 못하더라구요.

고찬영 교사 역시 유사한 사항을 언급하였다.

고찬영: 애들이 숙제를 내주면 해오질 않죠. 그래도 공부 안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충격 받지는 않았는데…애들 놀이 문화가 충격…이를 테면 여자 아이들이 무리 내에서 계속해서 한 명을 배제하는 거예요. 여자아이들 소수거든요. 저희 학교에서. 그 애들 한 명 배제하고 한 명이 떨어져 나가면 또 그 안에서 배제하고 이런 것도 봤고…수업 시간에 바닥에 침 뱉고 담배도 엄청 많이 피우고…임신하신 여자 선생님들이 그쪽으로 지나도 못하고 교실에서 담배도 피우고. 학생이 저래도 되나 싶은?

면담과정에서 연구자는 보통교과 교사들이 학창시절 생활측면이나 학습 측면에서 ‘말썽 없이 학교에서 이끄는 대로’ 또는 ‘부모님의 기대와 희망을 따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음을 포착할 수 있었다. 또한 보통교과 교사들

은 일반고나 특수목적고를 졸업하다 보니 직업특성화고의 직업교육과 관련된 사항이나 학생들의 특수한 측면을 이해하고 이를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보통교과 교사들의 괴리감과 충격에 대해 전문교과 교사인 현상태 교사는 “모범적으로 살아 온 교사”가 직업특성화고에서 학생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언급하였다.

현상태: 저는 학생들과 교사들 간에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저도 학교 다니면서 영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이 꼴 저 꼴 좀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물론 저도 100% 이해하지는 못해요. (중략) 어떻게든 좀 나아질 것 같은 아이들은 우리가 케어 해 가지고 그래도 나가서 지 밥벌이라도 하도록 내보내야 되지 않겠냐? 물론 이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그거는 이제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아주 모범적인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은 그게 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쵸?

연구자: 예...경험이 많아야...

현상태: 경험적으로도 조금 그렇고 아이들하고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고...

물론, 보통교사들 역시 직업특성화고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며 그 속에서 자신을 적응시켜가고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학생들의 특수성과 직업교육을 하는 직업특성화고라는 특정 맥락에서의 보통교사로서 무엇을 가르치고 왜 가르쳐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된다고 하였다.

고우리: 선생님들은 거의 다 인문계 고등학교 나오셨으니까 고등학교 때는 무조건 대학진학을 위해서 뭔가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이 대학 진학을 위한 것이었는데.....그래서 기대를 하고 그렇게 지도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니까 그 점이 크게 다른 부분이고 어렵죠...

연구자: 거기서 오는 차이점? 어려움이 있으시겠어요...

고우리: 그게...어려운 것이... 비전 제시가 힘들다는 말이죠. 대학 진학이라는 공통된 비전이 없으니까 공통된 목표가 없으니까 제 각각한테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연구를 통해 접하게 된 직업특성화고 보통교과 교사들은 학창시절 직업교육과 관련된 경험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다. 대부분의 교사가 직업특성화고가 아닌 일반고 혹은 특수목적고에서 ‘모범적인 학창시절’을 보내고 4년제 일반대학을 졸업하여 교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을 지닌 보통교과 교사들은 직업특성화고에 부임하게 되면서 학생들의 부정적인 학습태도와 분위기를 접하게 되고 또한 무엇보다도 직업교육 맥락 내에서 보통교과가 어떠한 의미와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었다.

3. 학교의 특징

이 연구는 직업특성화고에서 보통교과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역할을 탐색하여 보통교과 교육의 의미와 한계를 고찰해 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앞 절에서는 보통교과를 둘러싸고 있는 맥락 중, 직업특성화고의 핵심적인 교육 주체인 학생 및 교사와 관련된 미시적인 측면을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직업특성화고 전체 맥락, 즉 학교운영이라는 거시적인 차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는 정치적, 사회적 필요와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직업특성화고 교육과정의 특징으로 인해(이무근 외, 2000), 그 내부에 있는 보통교과 역시 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보통교과를 둘러싸고 있는 학교 맥락, 특히 최근 단위 학교에 강조되는 정책들과 이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특징적인 부분을 드러내 보고자 한다.

가. 취업률 강조 분위기

직업특성화고 교육의 방향은 시대에 따라 국가, 경제, 사회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 왔다. 단순기능인 양성부터 평생교육 시대에 부합한 다능공까지 다양한 인력 양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방향이 제시되어 왔다. 이

러한 방향에는 직업교육에 관한 정부의 정책이 핵심적으로 작용해 왔다. 현재 직업특성화고의 교육에도 최근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 사항이 반영되어 있었으며 직업특성화고의 교육 방향 역시 이에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었다.

임은상: 여기 같은 경우 더 높은 기능인이나 전문인을 키우기 위한 건너가는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 대학진학이 되게 많았어요. 그 관련 학과로. 취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미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정부 시책이 취업을 장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평가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교과부나 교육청에서 학교 평가할 때 현재 시책에 맞느냐 이런 거죠. ‘특성화고는 취업이다’ 이런 식으로…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의 직업교육과 관련된 정책의 핵심은 직업특성화고의 취업률 강화이다(박동열, 2012; 윤형한, 2013). 직업고등학교 학생들 취업을 위해 정부 부처, 지자체, 산업체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직업교육과정을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표준 중심으로 편성 및 운영하겠다는 방향도 설정하였다. 이는 직업특성화고의 기능을 취업 중심으로 상정하고 이에 부합한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부의 방향과 정책에 연구 대상 학교들은 순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으며 특히 학교 관리자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김신성: 최근 특성화고이기 때문에 취업률이 낮고 진학률이 높으면 특성화고를 인문계로 전환시킨다 교육청 방침이 그랬어요. 그래서 특성화고에서는 자꾸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애들한테 취업을 강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관리자들은 안 그런다고 하지만 은근히 인문계, 인문교과 방과후 같은 것도 개설하면 약간 눈치를 주고…

연구자: 진짜요?

김신성: 예 그러니까 전혀 이제 그런 방과후를 열지 않고 대학 진학에 대한 지원을 아예 하지도 않고…교육청에서 그런 조치가 내려오는 것이 두려운 거죠. 학교도.

또 다른 연구 참여자는 관리자들과 학교운영에 관한 생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관리자들과 취업에 대한 강한 의지와 그와 관련된 요구사항의 기저에는 “컨베이어벨트 식의 마인드”가 깔려 있다고 하였다.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중학교 내신 성적이 최대한 높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졸업할 때 “좋은 곳”에 취직시켜 학교 취업률을 높이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는 것이다.

고찬영: 관리자들과 마인드가 애들 졸업할 때 좋은 곳에 취업해서 취업률 높이고 플래카드 붙일만한 그런 데 취업 시킬만한 애들을 양성하는 거? 그게 목적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사실 되게 부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자꾸 실용적인 거 맞춤법, 자소서 이런 거 같이 회사 들어 갈 때 보탬이 되는 그런 거 위주로 하라고 요구하죠.

취업률이 단위학교에 강조되면서, 학교는 보통교과가 좀 더 취업과 관련 있는 것 위주로 가르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예컨대, 국어과의 경우 ‘이력서 쓰기’, ‘인터뷰 준비시키기’, ‘맞춤법 교육’ 등 학생들이 취업할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위주로 가르치라는 것이다. 실제 학교 관리자들과는 취업률 1~2% 상승에도 무척 신경을 쓰고 있었으며 보통교과 교사들에게 ‘어떻게든 취업 쪽으로 유도해라’라는 식의 요구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취업률을 강조하는 학교의 분위기는 교육청의 학교 평가와 관련이 있었다.

김신성: 교육청 같은 데에서는 시책 그러니까 취업률 높이는 것 같은 거죠...안 따라오면 특성화를 해제해버리겠다 인문계고로 전환 시켜버리겠다 하고 있으니 아무튼 뭐 쉽지 않겠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불안한 요소로 깔려 있죠.

이를 달리 해석하여 보면, 정부는 직업특성화고가 ‘본래 추구하였던 교육의 특수성’인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기술인, 기능인을 양성하고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만약 단위학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특성화고의 지위를 해제하거나 재정적인 압박 등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어서 관리자들과는 더욱 정부의 정책 방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

나. 전문교과 교사 주도 학교 운영

직업특성화고가 산업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목표를 추구함에 따라 학교운영은 전반적으로 직업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외부 프로젝트와 학교 자체 교육프로그램 위주로 돌아가고 있었다. 물론, 직업교육과 관련된 것 이외에도 다른 것들, 예컨대 ‘창의인성 강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도 하였지만 전체적인 학교 운영에 있어서 중심점 역할을 하는 것은 직업교육과 관련된 프로젝트들과 교육프로그램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들을 담당하고 실행하는 교사는 보통교과 교사들보다는 전문교과 교사들이었다.

봉우람: 교장선생님과 몇 분 전문교과 선생님들이 교육청이나 외부에서 프로젝트를 따오시지. 아무래도 직업교육 쪽이 전문분야이고 이쪽의 노하우가 필요하다 보니 전문교과 선생님들이 주로 하게 되고 그렇지. 프로젝트 말고도 진로교육도 외부 강사 초청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런 것도 대부분 우리가 (전문교과) 맡지.

(중략)

물론 인문교과 쪽에서도 하실 수 있지.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아무래도 이 쪽은 우리가 주로 하게 되는 것 같아.

봉교사의 말을 달리 해석하여 보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은 주로 직업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과 관련된 전문 지식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잘 알고 있는 전문교과 교사들이 프로젝트와 프로그램들을 주로 담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실제 학교 조직도 혹은 행정 문건을 통해 직업특성화고의 운영은 주로 전문교과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실습 현장 및 취업 확보를 위해 기업체와 MOU 체결 관련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 취업상황과 해당 산업분야에 대해 경험이 있고 이를 잘 알고 있는 전문교과 교사가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학교 내에 진행되는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이외에도, 주요 학교 운영 조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는 대부분 전문교과 교사였다.

고찬영: 저랑 친했던 선생님들, 젊은 선생님들은 다른 학교로 빠지시는 거예요. 애들이 싫어서라기 보다는 학교 시스템 때문에. 배제되고 그러잖아요. 인문교과가...학교가 전문교과 위주로 돌아가고 ...
이제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전체 학교가 돌아가는 것이 전부 전문교과 선생님들. 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선생님들도 부장선생님들도 이제 알음알음 전문교과 선생님들이시고...

고찬영 교사의 면담 자료에서처럼 직업특성화고의 전문교과는 교육과정운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위치에 놓이며, 교육과정의 편성과정에서도 전문교과 위주로 진행되고 있었다. 고교사 말에 따르면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부서 총 인원이 15명이지만 보통교과 교사는 단 한 명도 속해 있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남부고에는 인문사회부와 같이 보통교과를 위한 행정부서가 따로 존재하지 않다 보니, 부장급 교사가 보통교사들 중에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그나마 학교교육운영위원회 역할을 하는 창조교육부(가명)라는 부서에 국어, 영어, 수학 교사가 한 사람씩만 형식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정도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연구 대상 학교 일부에서는 시간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전문교과가 우선시 되어 시간을 먼저 정하고 남은 시간에 보통교과가 들어가는 식의 운영 상황도 포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문교과 교사 주도 운영 방식에는 교사 유임제가 작용하고 있었다. 유임제는 공립직업특성화고에서는 모든 교사가 5년을 근무하고, 5년 연장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보통교과 교사들도 유임을 신청하기도 하지만 직업특성화고에서는 전문교과 교사들이 주로 유임제를 활용하여 한 학교에 오래 근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고찬영: 생활지도 부장님이 여기 13년 째 계시는가? 거의 50세가 다 되어 가시는데... 전문교과는 선생님들은 인문교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공립학교에 있으면 5년 기본인데 거기에 유임할

수 있고 초빙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진짜 10년 넘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계속 계시는 분들. 남자 선생님들 평균 나이가 54세세요. ‘나이든 남자 0고 선생님들’이 우리학교에 기본적인 모습인데. 이 분들이 학교 행정을 주도하시면서 운영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져요.

유임제를 통해 한 학교에 장기간 근무하셨던 전문교과 교사들은 서로 업무 스타일이나 과정에 익숙하여 “손발이 잘 맞아 떨어지는” 관계를 형성하며 학교운영을 주도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보통교과 교사들은 학교운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V. 직업특성화고 교육과정에서 보통교과의 위상과 역할

앞 절에서는 보통교과를 둘러싸고 있는 직업특성화고의 맥락적인 측면을 살펴보았다. 특히 직업특성화고의 교육 주체인 학생과 교사의 특징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직업특성화고의 운영 맥락에서의 특징들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의 맥락들은 보통교과가 직업특성화고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석할 수 있는 배경에 해당된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직업특성화고 학교교육과정의 편성과정과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보통교과의 위상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보통교과의 위상

직업특성화고의 교육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보통교과의 위상을 탐색한다는 것은, 보통교과가 다른 교과들과 비교하여 편성과 운영과정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보통교과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맥락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다음은 직업특성화고 교육과정에서 보통교과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에 관한 두 가지 특징을 다루고 있다.

가. 주변적인 위치

직업특성화고에서 보통교과 국어, 수학, 과학 교과의 위치는 주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우리나라 직업특성화고의 교육목표는 특정 산업분야의 기술,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정부의 직업교육 정책의 방향이 고졸 취업자수 증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직업특성화고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취업률 상승이었다. 따라서 단위 학교에서는 전체적인 학교운영 방향을 전문교과 중심으로 편성하여 직업교육을 전보다 더욱 강화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였고, 이로 인해 교육과정에서 보통교과는 “(전문교과에)입지가 밀리고 있는”, 혹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또한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인식 자체에서도 보통교과는 부차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직업교육을 통해 기술, 기능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직업특성화고의 교육목표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보통교과가 전문교과에 비해 부차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이해가 간다고 말하고 있었다.

연구자: 다른 연구 참여 교사들에게 전문계에서 인문교과의 위치에 대해 여러 차례 들었어요. 힘도 못쓰고 항상 소외된...

한길로: (웃음) 애들이...실습 나가고 취업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인문교과는 사이드지. 사이드... 그게 뭐...사실 여기서서는 당연한 거고. 여기는 애들을 취업 시켜 내 보내는 게 중요하니까.

물론, 연구 참여자들은 직업특성화고에서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는 보통교과가 “찬밥신세” 혹은 “무시를 당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기분이 좋지 않다”, “학교를 떠나고 싶다”라는 식의 불만을 표명하지만, 그럼에도 보통교과가 전문교과에 비해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좀 더 명확히 말하자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차선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일면 당연하다고 보고 있었다.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자신의 진로를 취업으로 결정할 경우 무엇보다도 전문교과에서 배우는 실질적인 현장의 기술과 지식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었다.

한편, 직업특성화고에서 보통교과는 교육과정이나 학교 운영의 중심부로 침투하기에는 모종의 경계 혹은 한계에 막혀 소외를 당하고 있었다. 즉 보통교과가 학교 내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에는 어려운 점이 존재하였고 이로 인해 보통교과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에서 중심부에 위치해 있기 보다는 주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김신성: 다른 인문교과 선생님들이 말하기를 이 학교는 좀 다르게 돌아간다고

연구자: 전문교과 위주로?

김신성: 뭐 그렇기는 한데. 전문교과 위주로 돌아가도 (전문교과) 선생님들 위주로 돌아가는데. 다 그 선생님들이 하는 건데. 약

간 좀 다르다고. 회사 같고. 무슨 서열 같은 게 있고.

연구자: 보직도? 그런 전문교과 선생님들에게 비중이 있고?

김신성: 보직교사는 제가 속한 부서가 방과후개발부(가명)⁶ 인데 우리 부장님만 인문교과 선생님이시고 나머지는 보직교사들은 전문교사들이에요. 뭔가 위계가 있어요. 평등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뭔가 거기에서는 그렇지 않죠.

김신성 교사의 학교뿐만 아니라, 연구 대상 학교들의 교육과정 편성 부서 및 주요 학교 행정 부서의 보직교사 대부분이 전문교과 교사들이었다. 그래서 보통교과 교사들은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하였다. 또한 상부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분위기 역시 이러한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었다.

연구자: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뭔가 의견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김신성: 협의회 같은 것이 있죠. 그런데 그 협의회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몇 시에 합시다 오세요’ 하면 가요. 그러면 정해진 것을 우리들한테 통보만 하죠. 합의? 그냥 위에서 결정한 거 그대로 따라야 하고...통보하고 나서 의견 있으면 얘기 해보래요.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아예 이쪽은 힘이 없어요. 힘이...

고찬영 교사의 학교도 동일한 상황이었다.

고찬영: 이거 얼마 전에 저희 부장님이 교직원 회의 때 내년 교육과정에 대해 말씀하셨는데...또 국어 시수가 주는 거예요. 지금 국어 선생님 네 분씩 계시는데 한 분이 가셔야 하는...세 분으로 주는 거죠. 시수 줄여서 통보하고 그런 식이죠. 항상. 뭐 자포자기 상태죠. 이런 것들(웃음) 그냥 일방적인 통보로 은근 슬쩍 넘어 가시는 거죠.

위 연구 참여 교사들의 말을 달리 해석하면, 보통교과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⁶ 김신성 교사가 속한 동부고의 해당 부서는 그 이름의 특이성으로 인해 해당 학교 명을 유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가명 처리 하였다.

에서 소외의 대상이며 이미 결정된 사항을 통보 받는 위치에 처해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국가교육과정의 「학교급별 공통사항」을 살펴보면,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편성·운영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25). 즉 교육과정은 특정 조직이나, 일부 교사들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원’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는 ‘민주적 절차’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직업특성화고의 학교 운영에 있어 보통교과는 ‘학교 분위기상’ 혹은 ‘관례적으로’ 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라야 하는, 즉 결정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보통교과의 목소리는 반영되기 어려운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직업특성화고에서 보통교과는 교과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주목받지 못하고 ‘논외’로 설정되면서 주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2009개정 교육과정 이후로 직업특성화고에서의 보통교과의 시수는 점차 감축되었다. 국가교육과정 상 2007 개정 교육과정까지만 해도 전문교과와 보통교과의 비율이 1:1로 거의 동일하게 배정되어 있거나 보통교과의 비율이 전문교과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2009개정 교육과정부터 보통교과의 시수 비율이 전문교과에 비해 줄고 2013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될 2012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보통교과에 대한 시수가 큰 폭으로 감축되었다. 아래 표는 연구 대상 학교들의 최근 4년간 국어, 수학, 과학 교과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2010학년도, 2009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2011학년도, 그 이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2013학년도까지의 보통교과의 시수 변화에 해당된다.

<표 V-1> 연구 학교별 보통교과(국,수,과)별 시수 변화⁷

연구 학교명	보통교과	2010학년도	2011학년도	2013학년도
기사랑고	국어	20	18	10
	수학	30	18	10
	과학	10	10	10
동부고	국어	14	10	8
	수학	28	18	18
	과학	6	6	6
서부고	국어	24	20	18
	수학	28	24	22
	과학	10	10	10
남부고	국어	16	14	12
	수학	18	16	12
	과학	12	10	10
중부고	국어	14	10	10
	수학	16	14* ⁸	14
	과학	10	10	10

연구 학교들의 보통교과 시수 변화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과학교과를 제외한 국어와 수학교과는 2010년도에 비해 점차 감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기사랑고와 서부고의 경우,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던 2010학년도에 비해 2013학년도의 보통교과 비율이 월등히 감소하였다. 이러한 보통교과 시수 변화에는 직업특성화고의 취업률을 강조하는 국가 교육정책 기조로 인해 전문교과 시수를 대폭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보통교과의 시수를 줄인 것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도 예컨대, 수학교과의 경우 최소 필수 단위를 10단위로 설정하고 전문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교육과정

⁷ 2012학년도는 2011학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시수 상의 큰 변화를 발견하지 못하여 제외시켰다.

⁸ 중부고는 2011학년부터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한 절충형,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한 계속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국어와 과학교과의 시수는 양 교육과정 상에서 변화가 없지만 수학교과는 계속형의 경우 20단위로 증배하였다.

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그와 같이 제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보통교과의 시수 변화에 대해 서부고에서 수학교과를 맡고 있는 이진실 교사는 불안과 걱정을 나타내었다. 특히 가르쳐야 할 내용이 많은데 시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연구자: 지금 몇 단위로 구성되어 있죠? 아 그리고 2014년부터는?

이진실: (현재) 1학년이 4단위에서 3단위로 줄었어요. 그것은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2학년 이과반이 인문계에서 1주일에 8시간이었거든요. 여기는 1주일에 4시간이에요.

연구자: 반으로 썩~

이진실: 작년엔 그나마 5시간이었는데 올 해는 4시간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수업 시간이 반 밖에 안되면 해 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것은 굉장히 크죠.

연구자: 배워야 하는 것은 똑같은데,

이진실: 양을 똑같은데

연구자: 그 안에서 시간이 줄어 들면...

이진실: 다 못 가르쳐요. 걱정돼요. 계속 시수가 없어서 걱정인데...올해는 더 걱정돼요. 한 마디로 (시수 감축에 대해) 많이 안 좋아요.

이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교과목의 시수가 감축되고 전체 교육과정에서 그 비율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담당하는 교과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점차 줄어드는 것에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평소 학생들에게 “재미있는 수학, 즐거운 수학”을 위해 다양한 수업 방법을 고심하고 다양한 수학 체험 활동을 기획하는 이진실 교사에게 시수 감축은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수업”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수반시켰다. 그러나 학교는 이 문제에 주목하지 않고 있었다. 국가교육과정상 수학 교과 시수가 감축되었으니 학교교육과정 역시 이에 의거하여 시수 감축은 필연적이고 이를 교사는 따라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었다. 물론 이교사 역시 이러한 방침에 대해 이해하고 일부 수긍도 하지만, 실제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있어서 교과서는 기존과 동일하고 가르쳐야 할 내용도 동일한데 시수만 감축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불편함과 어려움을 호소하

였지만 학교 측에서는 어쩔 수 없다며 담당 교사가 알아서 하라는 반응만 보였다.

또 다른 연구 대상 학교 몇 곳에서도 보통교과 운영을 놓고 교사들 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심각한 수준의 갈등과 오해가 일어났다. 그러나 학교는 보통교과의 운영상 발생한 문제에 대해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며, 어떠한 방식이 되든 학교 전체 운영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아서 처리하기를 바라고 최대한 그와 관련된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고찬영: 인문교과가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뚫고 뭔가 발전을 이루기가 쉽지 않죠. 발전이 없죠.

인문교과에 학교가 바라는 것이 많지 않거든요. 사실은 교과에 개입을 안 하죠. 관심이 없죠. 그냥 교과 운영을 못해도 실은 상관을 하지 않죠.

한편, 보통교과 담당 교사들 스스로도 교과가 당면한 문제점들을 학교 중심부로 가져와 논의하여 발전적인 측면을 피하기 보다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다. 고찬영 교사는 이와 비슷한 상황을 언급하였다.

고찬영: 교육과정을 협의하는 부서가 있기는 한데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이 한 분씩 가계시긴 해요. 물론 부장도 없고 그런 거(운영상의 문제) 말할 사람도 아니고...오히려 말을 하면 전교조 선생님들이 말을 하셔야 하나?

아무튼 교사들은 별 말을 안 하죠. 그러니까 위에서는 계속 밀고 나가고 변화는 없고 그런 거죠.

위의 연구 참여자의 말을 다르게 해석해 보면, 보통교과의 불만이나 입장 표명을 한다고 하여도 학교 측에서 조치를 취하거나 적절한 대응으로 보이지 않는 편이며 반대로 보통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도 교과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학교 측에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결국 직업특성화고 내에서 보통교과는 학교 측으로부터나 교사 스스로에게서나 모두 논의의 중심부에 위치하지 못하고 ‘장외의 문제’로 다루어지며 주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이를 유지시키고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 전문교과로부터 단절된 위치

‘위상’이라는 것은 앞서 언급하였지만, 대상들 간의 관계 속에서 설정되는 위치나 상태를 의미한다. 직업특성화고 보통교과의 위상을 논한다는 것은, 직업특성화고 내부의 다양한 요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통교과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 절에서는 직업특성화고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핵심부로부터 ‘밀려나 있는’, 즉 주변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보통교과의 위상을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보통교과가 직업특성화고의 전문교과와 비연계성을 드러내며 ‘단절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살펴보려고 한다.

교육과정상에서 보통교과가 단절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는, 특히 직업특성화고처럼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특수한 맥락 하에서 전문교과와 보통교과가 상호관련성을 맺고 있지 않다는 의미의 ‘비연계성’과 관련된다. 흔히 교육과정에서의 연계성을 언급할 때에는 Tyler의 학습경험의 조직의 원리인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에 바탕을 둔다(이승미, 2012). 즉 교육내용에 있어서 계속적인 경험 제공의 중요성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연계성의 개념은 교과간 연계성을 지칭하는 수평적 연계성과 학년 간 연계성을 가리키는 수직적 연계성을 주로 의미하고 있다(강종표, 2010). 이러한 측면에 비추어 볼 때, 이 연구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사이 ‘비연계성’이라는 의미는 교과 내용적 측면에서의 수평적 연계성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보통교과가 전문교과의 교육내용 측면에서 서로 일부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실제 선행연구물에서도 보통교과와 전문교과간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서로 관련된 내용이 상당부분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조선기, 2002; 이종연 외, 2004). 그러나 기존 연구물에서 지적되었듯이, 실질적으로 교사가 교실 맥락에서 교과를 운영할 때 두 교과 사이 어떠한 연계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실제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과 수업관찰을 통해서도 연구자는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통교과의 내용 중 전문교과에서 동일하게 다루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을 전문교과와 연계성을 모색하기 보다 “그냥 반복”해서 가르치

고 있었다.

연구자: 지난 번 면담에서 교과에서…반복이…전공교과나 일반 보통교과 사이 반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고우리: 예.

연구자: 전문교과가 특성화고 같은 경우 공업고면 공업에 대해서 또 재구성해서 새로 교과서를 만들어요. 선생님들이 참여하셔서 교과서 만든 과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목 선생님들도 그 교과서를 본지 얼마 안되었을 때 가르쳐야 하고 다른 교과 선생님들은 아예 그 교과서를 볼 기회가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는 공업 관련 전문교과에서 겹치는 내용이나 아니면 과학교과 수준보다 전문 과목 수준이 더 높거나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중복으로 가르치거나 하는 경우가 많죠.

연구자: 그런 부분들…보통교과, 전문교과 사이 의견이라든가 내용이 라든가 조절…조율해 가지고…

고우리: 예. 배웠던 거나 똑같이 안 배우거나 아니면 과학에서 배웠던 거에서 조금 더 심화 하더라도 이어지게 해 볼 수 있을텐데 그게 좀 안되어 있어서요.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가르치죠(웃음).

보통교과와 전문교과가 협의를 통해 관련된 내용을 합의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고우리 교사가 말한 것처럼 “우리끼리 알아서” 전문교과는 전문교과대로 보통교과는 보통교과대로 분리되어 교과가 운영되고 있었다. 황우형과 이은정(2009)의 연구가 밝힌 바와 같이, 보통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전문교과의 이론을 도입하거나, 관련 이론의 예를 들면서 지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 점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전문교과의 경우 수시로 교육과정에 변화가 있으며 교과서 역시 자주 바뀌어 보통교과 측에서 전문교과가 다루고 있는 내용에 대해 알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는 현대의 많은 산업분야들의 변화 속도가 상당히 빨라 이에 대응하여 전문교과의 내용 역시 수시로 변화가 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보통교과 교사들은 학생들이 어느 시기

에 무엇을 배우는지를 알기가 어려워 보통교과 교사들은 “직업과 연관시킨” 혹은 “직업과 관련된” 과정을 가르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학교 내에 전문교과와 보통교과 사이 협의회가 있다면, 연계를 시도해 볼 수도 있겠지만 협의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시도조차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직업특성화고에서 보통교과의 ‘단절적인 위치’는, 보통교과가 직업특성화고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외적 변화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측면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독립성은 두 개의 사건 중 한 사건의 발생여부가 다른 한 사건의 발생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관계를 의미한다. 이는 직업특성화고가 외부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요구로 말미암아 직업교육과정의 경우 다양한 방향과 내용으로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인 것과 달리, 보통교과는 그 어떤 외부적인 자극과 변화에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하나의 외판 섬’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연구자: 예전에 말씀하시기로는 (외부 변화에 영향을)안 받는다고 하셨는데, 학교가 공고에서 특성화고로 전환되면서 수학교과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한길로: 그렇죠 뭐. 다른 전문교과들이야 발 빠르게 바뀌죠. 교과명도 바뀌고 내용도 아예 바뀌고…그런데 안 바뀌지.

연구자: 뭔가 특성화고로 전환된다는 것은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으로 더욱 바뀌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보통교과는 전혀 변화가 없이 그대로인가요?

한길로: 그렇지. 바뀌는 움직임이 전혀…보이지 않지. 인문교과는 그대로 가는 것 같아.

앞서 언급하였지만 2009개정 이후 국가교육과정 상에서 직업특성화고의 보통교과 시수 비율을 감축함에 따라 단위 학교 역시 기존의 보통교과 시수를 감축시켰다. 그러나 보통교과 교육과정의 운영에는 이러한 보통교과의 시수의 변화 외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직업특성화고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이 시달되면서 학교운영은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국가의 직업특성화고 교육 정책이 ‘선취업, 후진학’을 강조하면서 취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또한 2008 고교 다양화 정책 이후 ‘전문계고’ 명칭을 ‘특성화고’로 바

꾸면서 정부와 직업특성화고는 특정분야 인재 양성에 더욱 매진하였고, 고등학교 직업교육을 보다 정예화, 체계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박동열 외, 2012). 예컨대,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특성화고 교육희망사다리 구축 방안’ 등 여러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었으며 재정적 투자에 있어서도 그 폭을 확대하여 직업특성화고가 ‘특성화’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시 직업교육 쪽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고 있었다. 취업과 관련된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단위 학교만의 특성화된 특화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학교 운영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와 달리, 보통교과는 부동자세를 취하며 기존의 운영되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유지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물론, 학교 측에서는 이러한 정책적 흐름에 부응하여 보통교과가 학교의 취업률을 증진시키는 데에 일조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한 연구 참여자에 따르면, 학교가 보통교과 교사들에게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것 위주로 가르치라는 압력도 상당하다고 하였다. 예컨대, 이력서 쓰기, 면접 준비하기, 전국단위 대회에 출전하여 스포츠하기 등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연구자는 실제로 교실 맥락에서 혹은 전체 보통교육과정 운영상에서 이를 반영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도 “압박은 받지만 취업을 위한 것만 계속 할 수 없다”, 즉 잠시 가르칠 수 있으나 연속해서 지속적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또 다른 연구 참여 교사는 “아무리 변화가 오더라도 보통교과는 보통교과다”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일부 교사들은 보통교과를 “그 본질적 성격 자체가 학문적”이라고 간주하며 보통교과가 실제적인 것을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직업교육과 관련을 맺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었다.

김신성: 인문교과는 국, 영, 수, 과 이걸 너무 학문적이잖아요? 성격 자체가 매우 학문적이예요. 실생활적인 거 하고는 거리가 있죠. 그래서 과학 특히 물리 같은 경우 진짜 학문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만든 거죠. 물리는 사실 여기와(직업특성화고에서와) 달리 실제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죠.

김교사의 경우는, 보통교과 본연의 목표는 학문이라고 보고 있었다. 특히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과학과 물리 교과와 구조는 학문에서 비롯된 것이며 “매우 이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사실 김교사 이외에도 고교사 역시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보통교과는 “이론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실생활과는 관계를 맺기 어려운”, “생활 속에서 쉬운 소재와 연결 짓기에는 한계”가 따르는 교과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즉 보통교과의 성격을 이론적 혹은 학문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전문교과와의 연계를 모색하기보다는 양자 사이 경계를 짓고 ‘직업교육 쪽에서 할 일’과 ‘보통교과 쪽에서 할 일’을 명확히 구획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정리하면, 직업특성화고에서 보통교과는 전문교과와의 연계성을 보이며 운영되기보다는 “보통교과끼리 알아서” 운영되고 있었고 직업특성화고 외부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모습을 보이며 단절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이러한 모습에는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변화의 속도를 맞추는 전문교과를 따라갈 수 없는 보통교과의 현실과 더불어 보통교과의 성격 자체를 학문적 혹은 이론적으로 규정하며 전문교과와의 경계를 긋는 교사들의 인식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었다.

이제까지 직업특성화고의 실제 맥락을 살펴봄으로써 보통교과가 차지하고 있는 두 가지 위치 요컨대 보통교과는 직업특성화고 내에서 주변적, 단절적으로 그 위치가 설정되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다음 절에서는 직업특성화고 내에서 이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과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2. 보통교과의 역할

이제까지는 직업특성화고 실제 맥락에서 국어, 수학, 과학을 중심으로 보통교과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즉 직업특성화고 학교교육과정 운영 전반에서 보통교과는 주변적이며 단절적인 위치에 놓여 있음을 살펴보았다. 비록 보통교과가 직업특성화고 내에서 운영적 측면에서 주변적, 단절적인 위상을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보통교과는 여전히 전체 학교교육과정상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 절에서는 보통교과가 직업특성화고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이론적 배경에서 다루었던 보통교과의 역할, 요컨대 ‘모든 사람이 직면하는 삶의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장에서 실제로 그러한 의미가 구현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와는 다른 어떠한 역할들이 상정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다음은 현장 연구를 통해 정리한 직업특성화고 보통교과의 실제 역할을 나타낸 것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겠으나, 본격적으로 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한 가지 언급해야 할 점은 직업특성화고에서의 보통교과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단일하게 나타났다가 보다, 제시된 모든 역할이 복합적으로 연구대상 학교와 교사들에게서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 수능준비 혹은 장기적 삶을 위한 준비

대학입시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학교교육과정 운영에서부터 교실수업에 이르기까지 대학입시의 ‘강고한 족쇄’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조용환, 2009). 입시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교육내용 선정, 교수방법, 평가까지 입시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직업세계와 실제 삶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은 뒷전이 된 채 대학 입시에 필요한 것들로 고등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정태화, 1999). 이러한 입시의 절대적인 영향력은 직업교육을 교육의 주된 목표로 삼고 있는 직업특성화고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었다.

참여 교사마다 대학 입시의 영향을 받는 강도는 조금씩 달랐지만 대부분 보

통교과가 입시적인 것 즉 ‘수능’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는 전제는 모두 가지고 있었다.

연구자: 다른 교사 분들이 수능 이야기를 되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구요.

고우리: 예...전문계고와 수능...고등학교에서는 수능의 의미가 아무래도 크니까요. 고등학교 자체가...특히 인문계면 수능 무조건 봐야 하는...수능 보는 것이 정해져 있으니까 목표가 수능이잖아요. 교과 수업도 다 수능을 위해 준비 짜여 있고. 시험도 입시대비고...

제가 볼 때 수능이, 되게 특히 인문교과의 구심적인 역할인 것 같아요. 많이들 그 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보통교과의 역할을 수능 준비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로 상정하는 교사들의 생각에는, 고졸 취업 증진 정책의 영향을 받은 최근 1~2년을 제외하고, 2002년 이후부터 직업특성화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꾸준히 증가한 점과 관련이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09년과 2010년의 직업특성화고의 진학률이 20% 미만인데 비해 진학률은 70%에 가까웠다. 연구 참여 교사들은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 중에도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예전에 비해 현저히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보통교과가 그런 학생들의 진학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이진실: 아무리 직업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학교 내에) 진학하려는 아이들도 꽤 있고 그런 아이들을 배제하고 다른 교육과정을 선택해서 가르치기는 어렵거든요.

김신성 교사 역시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김신성: 뭔가 다르게 가르치기 어려워요. 아이들 중에 혹시 나중에 수능을 볼 수 있잖아요. 그건 막을 수 없는 거니까. 그랬는데 나는 전혀 물리를 가르치긴 했지만 전혀 수능이랑 관련 없이 가르쳤다고 했을 때 그 아이가 가지게 되는 손해? 그런 거 생

각하면 수능과 멀어져서 가르칠 업무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이렇듯 교사들의 보통교과가 수능을 준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은 매우 현실적이다. 우리나라 교육 현실과 사회문화적 상황상, 직업특성화고의 많은 학생들이 좀 더 심화된 직업교육을 희망하거나 혹은 대학에 진학하여 전혀 다른 진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학생들의 필요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교사들은 보통교과가 학생들의 진학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교육의 내재적인 목적 즉 ‘교육 그 자체’를 위한 것은 아닐지라도 현실적인 학습자의 상황을 고려하려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통교과는 수능을 위한 도구로서 그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다.

기실 보통교과가 고등학교 교육에서 어떠한 고등학교 유형을 막론하고 입시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새로운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다소 진부한 논리에 해당된다. 그러나 한 가지 고민해 보아야 하는 점은, 직업특성화고 학생들 일부가 진학을 생각하듯 또 다른 많은 부분의 학생들이 진학이 아닌 취업을, 혹은 다른 진로를 생각하고 있다는 측면이다. 그럼에도 직업특성화고에서의 보통교과가 담당하는 역할이 입시적인 것이 핵심인 것처럼 여기는 인식, 즉 ‘보통교과=대학진학 수단’이라는 편향된 등식이 보통교과 교사들에게 강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직업특성화고에서의 보통교과가 입시로 치닫는 이유를 김용호(1992)는 교과 위상과 역할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길이 입시라고 보는 관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 속에서 보통교과의 역할을 입시로 귀결 짓는 이유는, 교사들이 과거에 자신들이 받은 교육경험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보였다. 직업특성화고에서 보통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일반고나 특수목적고를 졸업하고 4년제 대학을 나와 국가임용시험에 통과하여 교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업특성화고 학생들이 선택하는 다양한 진로와 관련된 유사한 경험을 보통교과 담당 교사들에게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고우리: 저희 선생님들은 거의 다 인문계고 나오셨잖아요. 고등학교 때 무조건 대학 진학을 위해서 뭔가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이 대학 진학을 위한 것이었는데……그래서 그런 기대를 하고 그렇게 지도를 하는데. 여기서도 그게 아니니까. 대학진학도 많

이 하지만 또 애들이 그렇지 않은 애들도 많거든요. 그게 크게 다른 부분이고 어렵고.

연구자: 거기서 오는 차이점?

고우리: 대학 진학이라는 뭔가 공통된 비전이 없으니까.

애들이 ‘수능 안 볼건데요’, ‘수능 필요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공통된 목표가 없으니까 제 각각한테 어떤 비전을 인문교과에서 제시를 해야 될까...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보통교과 교사들의 과거 고등학교 시절의 경험에는 입시가 주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입시 공부에 매진하였고 거의 대부분 일반계고에서 학교 생활을 마친 보통교과 교사들은 보통교과의 역할이 수능이 아닌 다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면, “감이 오지 않는다”, “생각해 내기 어렵다” 등과 같은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부 연구 참여 교사들은 직업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가 일반고와 달리 ‘입시’라는 일방향으로 치닫지 않고 다양한 방향으로 퍼져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보통교과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곳”이라고 하였다.

박시은: 인문계에 있을 때는 입시에 대한 부담감이 아무래도 여기보다 크니까. 그런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입시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취업을 준비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입시에서 조금 부담이 인문계보다는 덜 해요. 확실히 안 갖는 것은 아니지만 덜 하죠. 입시에만 얽매어서 수업을 운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다르게 교과에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박교사의 말을 달리 해석하여 보면, 직업특성화고에서 보통교과가 수능 준비를 위한 도구적인 역할로만 국한되지 않으며 다소 다른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박교사를 비롯하여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보통교과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자신의 전 생애를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보통교과에서 좀 더 다루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보통교과의 역할은 모든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나타났다가 보다 기존의 직업특성화고에서 보통교과가 차지하고 있는 역할에 회의와 고민을 가지고 있던 일부

연구 참여자들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었다.

고찬영: 교과서에 나열된 수많은 정보들...정보를 아는 것이 애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 저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것을 안다고 예를 들어 면담 기사 잘 읽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별로 보탬이 되지 않고 결국 시험을 위한 정보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니 물론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인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렇듯 고교사는 직업특성화고 내에서 보통교과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수능 준비 이외에 다른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었다. 특히 고교사의 입장은 실습현장에서는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인간”, 요컨대 주어진 과업을 빠르게 완벽하게 수행하는 인간을 요구하고 있으며 직업특성화고는 이를 성취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보통교과는 학생들에게 회사나 사회에서 부여하게 될 과업들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하게 하고 자신의 삶의 방향이 어떠한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 고교사는 수업에서 ‘삶을 돌아보기’와 같은 주제로 교과서 텍스트의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을 둘러싸고 있는 현재 환경과 나아가 현대 사회적인 측면 등 취업과 진학 이상의 삶을 학생들이 고민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었다.

박시은 교사는 역시 “(전체의) 삶에 기반이 되어 주는 것”이 보통교과에서 함양해야 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직업특성화고는 그 설립 목적에 부합한 인재상을 배출 시킬 수 있는 전문교과 교육을 당연히 강조하고 그것에 중점을 두어야 하지만, 보통교과는 이와 평행선 상에서 “전문인으로서 어찌되었건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다루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이를 위해 박교사는 기본적으로 국어 교과서에 나온 텍스트를 이해시키는 수업을 하지만 결국 이해 수준을 넘어 학생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키워 과제를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박시은: 작년에 국어 교과서에 ‘간송 전형필’ 전기가 실렸어요. 그 단원을 배울 때 저는 아이들한테 전형필 말고 현재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시간에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수업을 실제로 시

켰거든요. 조별로 인터뷰를 해서 가지고 온 결과를 프레젠테이션 시키는 수업을 했어요. 그 수업이 참 인상 깊었어요.

(중략)

예를 들어 한 학생의 경우 노량진 수산 시장에 가서 젓갈 파는 할머니인데 남몰래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분. 이런 분을 찾아 인터뷰를 해가지고 오고...주변에 친구 엄마 이런 분들이 정기적으로 복지관을 방문해서 봉사를 한다든가 어린이 방에 가서 종이 접기 교육을 봉사로 해준다든가....그런 분들의 소박한 삶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는...인터뷰를 해가지고 와서 발표하는 데...제가 행복한 거죠. 그런 경험을 한 아이들이 학생들은 언젠가는 생애주기 언젠가 자기도 나눔을 실천하는 소박한 활동을 할 거라는 믿음이 제게는 있거든요.

박교사의 이런 식의 접근은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학생의 삶 속으로 끌고 들어 가서” 그것을 고민해 보고 실제 활동까지 수행하여 봄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삶’에 관해 고민해 보게 하고, 결국 학생 자신이 살아가게 될 삶에도 의미 있는 것들을 도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부 연구 참여자들의 노력은 앞의 두 절에서 다룬 직업특성화고에서의 보통교과의 역할에 비해 연구 전체 과정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삶의 기반’이 되는 보통교과의 역할이 연구 참여자들 모두에게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교실 맥락에서 이와 관련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연구 참여 교사 대부분은 ‘일반 소양’, ‘인문소양’, ‘상식’ 등을 언급하며 보통교과가 수능 이상의 것들을 다루어야 한다고 여기고는 있었다. 단지 실제 수업 맥락에서 학생들을 위해 ‘장기적인 삶’의 기반을 구축하는 측면을 다루는 연구 참여자가 일부에 그쳤을 뿐이었다.

이제까지 직업특성화고에서의 보통교과가 수능준비를 위한 도구적인 역할 혹은 학생들이 졸업 후 살아가게 될 장기적인 삶을 위한 준비 도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고등학교 교육에서 수능의 강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직업특성화고에서조차도 보통교과는 이를 준비하는 역할로 간주되고 있기도 하였지만,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는 직업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가 다양한 방면으로 뻗어 있다는 점에서 수능 준비 이외에 학생의 전 생애를 준비하는 역할을 취할 수 있음이 나타났다. 다음 절에서는

이 두 가지 역할 이외 직업특성화고에서 보통교과가 차지하고 있는 또 다른 역할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보조

현재 우리나라 직업특성화고는 산업분야의 인력 양성을 주된 교육목표로 여기고 있다. 공업계열이면 공업분야의 전문인, 상업계열이면 상업분야의 전문인 등 각 산업별 해당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직업특성화고가 지향하는 이러한 특정 직업적인 교육목표는, 보통교과의 역할을 직업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능력을 함양시키는 기초 도구로 규정하고 있었다.

연구자: 수학을 여기서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셨어요?

한길로: 수학을 왜 배울 필요가 있냐...학생이 전문교과를 공부 할 때 ...기계 같은데 관련해서...아니면 나중에 관련 기업에 나갔을 때 작도를 한다든지 설계를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짜다든지 할 때 기초적인 수학 지식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수학은 도구적이고 교육과정의 필수과목이고...그렇죠...뭐... 전문계고에서는 수학을 전문교과의 기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연구참여자 한교사는 직업특성화고 내에서 보통교과인 수학교과는 학생들로 하여금 직업교육을 받는 데에 있어서 기초적인 역할, 요컨대 전문교과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았다. 예컨대, 공업계열 전문교과에 나오는 수학공식 혹은 전문교과 이론을 다루기 위해 수학교과가 기초적인 수학의 원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연구 참여자 역시 한교사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자: 전문계고에서 과학교과는 어떤 의미...인가요? 큰 질문이긴 하지만...

고우리: 일단 전문계고에서 직업교육을 할 때 기초적으로 필요한 지식. 그러니까 과학적 지식이 있어야겠다는.....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 애들이 졸업해서 전기 관련 직장을 가졌을 때 그 직장에서 일을 배우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전기 관련 기본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죠.

고교사 역시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과학교과가 직업교육을 받는 데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이라고 보고 있었다. 안재희(2003)의 연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보통교과는 직업특성화고의 전문교과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돕는 ‘보조지식’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에는, 앞 절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보통교과가 전문교과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다. 즉 전문교과를 위해 기초적인 역할 혹은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나 전문교과와 동등한 위치에서 기초가 아닌 다른 역할을 구현해 내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입장인 것이다. 또한 직업특성화고에서의 보통교과의 역할을 전문교과 교육을 위한 기초 도구라고 여기는 것은 직업특성화고가 추구하는 주된 교육목표 즉 산업인력 양성이라는 측면과 관계가 있다. 학생들이 해당 산업분야 지식과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직업특성화고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고, 이를 위해 보통교과는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논리와 더불어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직업특성화고를 구성하고 있는 학생들의 특징이다. 특히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부분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연구자가 조사한 연구 대상 학교들은 한 곳을 제외하고 대부분 중학교 내신 성적이 80~90%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진학하는 곳이었다. 중학교 때 기초과목에 대한 학업 성취도가 일반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에 비해 상당히 떨어진 학생들이 직업특성화고로 진학한다는 것이다.

연구자: 여기서 공부하는 전문교과 내용들 수학하고 과학하고 꽤 관련이 많지 않나요?

한길로: 음. 관련이 없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심각해요. 수준이...

연구자: 얼마큼...?

한길로: 심각한 애들은 통분을 못한다던가...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안한거죠. ‘ $1/2+1/3=1/5$ 이다’ 이렇게...그런 수준의 아이들

이 지금 한 반 정원이 25명인데 못해도 5명은 넘을 듯해요.
더 많이 나오면 나오지...

직업특성화고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증가하고 사회문화적 기대와 시선이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면서 직업특성화고에도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기초학습능력을 갖춘 학생들의 진학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일부 연구에서는 직업특성화고를 선택한 학생들의 진학 동기가 ‘학생이 원하던 분야’가 ‘중학교 내신 성적’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경우도 있다(오석영 외, 2012).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직업특성화고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은 낮은 편이며, 연구자가 방문한 대부분의 학교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점은 2008년, 2009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한 학교 유형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학업성취 비율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직업특성화고에서 ‘기초학력수준’이거나, ‘기초학력미달 수준’의 비율은 국어교과와 경우 71.8%, 수학교과는 92.4%로 일반고의 21.1%와 33.6%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박동열 외, 2009).

직업특성화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낮음으로 인해 보통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수업 내용을 “항상 쉬운 것만” 또는 “어려운 것을 빼고 가르치기 쉬운 것 위주”로 구성하면서 이를 통해 학생들이 기초적인 수준 예컨대 최소 중학교 수준의 기초 지식을 습득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김신성: 사칙연산도 힘들어 하는 애들도 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복잡한 거 해도 안 합니다. 안 해. 전혀...그냥 자요. 그러니 쉬운 것만이라도 골라 가르치죠. 그거라도 알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들의 수업을 관찰하면서 자주 발견할 수 있었던 사항은 수업내용이 상당히 단편적이고 쉬운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학생들의 생각을 끌어내거나 그것에 대해 논의를 하는 등 기초 수준 이상의 것을 다루는 것을 거의 볼 수 없었다. 또한 교과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방금 배운 내용을 가지고 ‘빈 칸 채우기’와 같은 단순한 활동 위주로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경우도 종종 발견할 수 있었다. 일부 연구 참여 교사들의 입장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빈칸이라도 채우는 활동과 같은 기초적인

것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반문하기도 하였다.

물론 연구 대상 학교들에 기초학력이 미흡한 학생들이 많다고 하였지만 기초학력 미흡 수준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 어느 수준 정도를 맞춰야 하는지 고민하는 교사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들의 학습능력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과정에는 수준별 수업은 개설되어 있지 않아 좀 더 개별적인 학습 결손 누적을 보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연구 학교 내 기초학력 수준은 넘는 ‘보통 수준’을 지닌 학생들도 있어, 연구자는 그러한 학생들을 고려하여 수업 시간에 아주 어렵지는 않지만 기초수준보다는 약간 한 단계 위의 내용을 다룰 수 없는지를 연구 참여자들에게 물어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연구 참여 교사들은 기초적인 것도 소화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그 이상의 것을 무리라고 여겼으며 그런 식의 수업 진행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었다.

정리하자면, 직업특성화고에서 보통교과는 전문교과를 학습하는 데에 기초가 되는 지식들을 가르치고 학업성취가 낮은 학생들의 기초학업능력을 증진시키는 보조적인 도구의 역할 정도로 여겨지고 있었다.

VI. 직업특성화고 보통교과 교육의 개선을 위한 논의

이제까지 직업특성화고에서의 보통교과가 어떠한 맥락 속에 놓여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직업특성화고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상 보통교과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그렇다면, 직업특성화고 현장의 다양한 맥락을 바탕으로 보통교과가 직업특성화고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역할은 직업특성화고 보통교과 교육에 어떠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가? 이 질문은 연구를 통해 드러난 직업특성화고 보통교과의 위상과 역할이 어떠한 의미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를 해석해 보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 더불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직업특성화고에서 보통교과가 왜 그러한 문제점에 봉착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검토해 보는 과정이기도 하다. 다음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우선, 현재 직무숙달에 중점을 두고 있는 직업특성화고의 교육에서 보통교과는 평생학습의 기초를 제공하고 보편적인 삶을 위한 준비도구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직업특성화고의 교육과정은 졸업 후 취업이 가능한 직종과 고용기회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과 능력을 고려하여 계획 및 운영되고 있어(이무근 외, 2000), 학생들의 직무능력 숙달은 직업특성화고 교육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후반부터 정부 차원의 직업특성화고 정책 기조가 ‘취업중심’에 방점을 두게 되면서 직업특성화고의 성격이 고졸 취업자들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로 규정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윤형한, 2013). 이는 현재 직업특성화고 교육의 방향이 산업분야에서 요구하는 직무숙달 위주의 교육을 수행하는 ‘산업사회형’으로 흐르고 있음을 보여준다(강형근, 2004). 그렇다면, 이렇듯 직무숙달에 주목하는 직업특성화고에서 보통교과는 어떠한 위치를 차지해야 하며 그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이는 현대 사회의 변화 속에서 보통교과가 지니고 있는 의미에서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된 현대사회는 유용하고 창의적인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고급 전문 기술인력을 요구한다. 이는 기존의 직업교육에서 양성하였던 단순 기능인력이 아닌, 고도화된 산업 구조에 적합한 유연하고 다기능적인 인력이 요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기술보다는 평생학습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연계성 있는 기술’과 ‘광범위한 차원의 능력’에 해당된다(소경

회, 2008; Rojewski, 2009). 이러한 측면은 보통교과 교육이 추구하는 바와 상당히 맞닿아 있다. 이는 보통교과의 목표가 학생들이 졸업 후 살아가게 될 보편적인 삶과 이에 요구되는 일반적인 능력을 함양하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통교과 교육은 산업분야의 직무훈련 위주로 교육을 받고 있는 직업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오히려 더욱 요구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일부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보편적인 삶을 위한 준비 도구로서 보통교과를 이해하고 이를 수업 장면에서 적용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장기적인 삶’을 위한 기반으로 보통교과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이들은 보통교과가 학생들이 직업특성화고를 졸업한 후 곧바로 직면하게 되는 취업과 진학을 위한 모종의 역할을 담당하기보다는, 학생의 전 생애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해야 한다는 여기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현재 직업특성화고 학생들이 직무중심의 직업교육을 받으며 ‘효율적인 인력’으로 준비되고 있는 측면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보통교과가 의미 있게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컨대, 보통교과가 직업 현장에서 주어진 과업에 대해 학생 스스로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한다든지 혹은 직업특성화고 학생들을 둘러싸고 있는 현재의 환경과 나아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고민해 보게 하는 측면은, 보통교과로 하여금 직업특성화고의 현재 상황에서 교육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연구의 전반적인 결과를 살펴볼 때, 직업특성화고 보통교과의 운영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 직업특성화고에서 보통교과의 위상과 역할은 보통교과 교육이 지향하는 바와는 거리가 있었다. 보통교과가 직업특성화고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살펴보면, 학교교육과정의 편성되는 과정의 핵심부에서 밀려나 주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교사가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측면에 있어서 다른 교과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연계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보통교과가 직업특성화고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에 있어서도 문제는 존재하였다. 실제 직업특성화고 학생들이 졸업 후 대학 진학 이외에도 다른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해당되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보통교과는 수능 준비 도구로 여기고 있거나 단순히 전문교과 학습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기초학업능력을 향상시키는 보조적인 수준으로의 역할로 한정되는 있는 경우가 많았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보통교과는 학생

들에게 보편적인 삶의 문제를 고민하게 하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전 생애를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직업특성화고의 교육과정 편성과정과 운영과정에서 보통교과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역할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며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보통교과가 직업특성화고에서 제대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직업특성화고의 보통교과 교육이 추구하는 교육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논의가 필요한지 살펴봐야 한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시사점은 후속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몇 가지 사항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직업특성화고’의 특수 맥락에 대한 보통교과 교사들의 이해가 확장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과 교육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직업특성화고 보통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상당수가 학창시절 모범적인 생활과 학업에 열심을 가진 학생들이었다. 이와 더불어, 보통교과 교사들이 일반고 혹은 특수목적고와 같이 직업특성화고가 아닌 다른 유형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항은 보통교과 교사들이 ‘직업특성화고’라는 특수한 맥락과 관련된 경험과 이해의 폭이 좁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물론, 직업특성화고의 어려운 상황과 맥락에 대해 일정부분 교사들끼리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만 살펴봐도, 직업특성화고로 발령을 받기 이전까지 보통교과 교사들은 직업특성화고의 구체적인 경험과 정보가 부재인 채 학교에 부임하여 괴리감과 혼란을 겪고 있었다. 유사하게, 김진(2011)의 과학교사들의 직업특성화고 적용에 관한 연구에서도 직업특성화고로 전보 발령이나 초임 발령을 받은 후 과학 교사들은 초창기 적용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나타났다. 그러나 보통교과 교사들에게 전보 발령 혹은 초임 발령 이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특수한 교육 기관으로서 ‘직업특성화고’에 관한 정보와 교육은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직업특성화고가 여전히 고등학교급에 해당되지만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목표에 있어서 일반고와는 다른 특수한 측면 요컨대 산업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두는 ‘특성화된’ 학교라는 사항을 보통교과 교사들이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직업특성화고의 보통교과 교육이, 특히 방법적인 측면

에서, 일반고와는 다소 다르게 다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보통교과 교사가 준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물론, 보통교과 교육의 목표 예컨대 현대 시민사회를 살아가는 데 요구되는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는 점은 일반고나 직업특성화고나 모든 학교급에서 추구해야 하는 공통된 목표이므로, 교사의 가르치는 환경이 변화한다고 하여 보통교과의 교육목표와 교육내용구성 측면이 크게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비록 보통교과가 상정하는 교육목표가 어느 학교 유형에서나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달성하는 방식과 내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는 보통교과가 가르쳐야 할 내용과 방법이 직업특성화고의 상황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통교과 교사들에게 사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미 발령을 받아 직업특성화고에 근무하고 있는 보통교과 교사들에게도 맥락특수적인 상황에 맞게 보통교과가 어떻게 가르쳐져야 할지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교사교육, 혹은 학교 내외부의 교사 공동체 모임을 통한 정보 공유와 공동학습이 필요하다. 실제 이 연구에 참여하였던 여러 보통교과 교사들 역시 직업특성화고 보통교과 교사들의 모임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한 점 역시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해 준다. 따라서 보통교과 교사들이 교사교육과 교사모임을 통해 직업특성화고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는 학습정보와 교사적응에 필요한 사항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직업특성화고의 보통교과 교육과 직업교육 사이의 명확한 경계를 흐릴 필요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드러난 결과에 따르면, 직업특성화고에서 보통교과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주변적이며 단절적이었으며, 그 역할은 요컨대 수능준비 도구 혹은 장기적인 삶을 위한 준비 도구, 기초학력 증진 도구였다. 이러한 보통교과의 위상과 역할은 보통교과가 직업특성화고 내에서 다른 맥락들과 경계를 세우고, 스스로의 영역을 구획 짓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보통교과 쪽에서 할 일’ 과 ‘직업교육 쪽에서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보통교과와 직업교육 간의 경계 세움과 영역 구분은 보통교과와 직업교육 양자 사이를 이분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전제되어 있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이분적 시각은 보통교육과 직업교육간의 병렬적인 접근을 유지시킨다. 즉 직업교육에서 다루는 것은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기와 실습 측면이고, 보통교과는 실생활보다 지식의 원리와 법칙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양자 사이 이분적인 접근을 극복하고자 여러 가지 시도들은 있어왔다. 우선, ‘비즈니스 영어’, ‘엔지니어링을 위한 수학’과 같이 보통교과와 내용에 직업교육적인 요소들을 반영하여 통합을 시도하는 경우이다(Grubb, 2006). 이 경우 보통교과 교육에 직업교육이 다루는 사례 및 응용 사항들을 반영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직업교육에서 보통교과와 내용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다르게, 직업교육 쪽에서 보통교과가 다루는 기초적인 내용들을 끌어 들여 전문교과 교육 자료로 개발하는 통합적인 노력도 있다(Grubb et al., 1992). 그러나 두 가지 통합의 노력은 모두 일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work) 즉 일을 목적으로 일 그 자체를 가르침으로써 일을 숙달시키는 교육이 전제되어 있다. 이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사이의 경계를 흐리기 보다는 여전히 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시도가 지속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이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수준에서, 특히 보통교과 쪽에서 일을 위한 교육보다는 ‘일에 관한 교육’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직업교육과의 연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전술한 바와 유사한 수준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사이 통합은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특히 양자 사이의 경계가 좀 더 흐려진 예컨대 직무나 직업을 ‘위한’ 교육이 아닌 일에 ‘관한’ 교육에 좀 더 초점을 둔 교육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보통교과 쪽에서는 이와 관련된 교육이라고 하였을 때 보통교과가 무엇을 다루야 하며 어떻게 그것을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수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직업’에 대한 개념이 재개념화될 필요가 있다. 보통교과와 직업교육 간의 이분적 접근을 지양하고, 양자 사이 경계를 흐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업’의 개념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직업교육에서 의미하는 ‘직업’은 주로 ‘직무’, 곧 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특정한 기술로 규정되며 이러한 개념이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직업교육과 병합될 때 청소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를 돕는, 보통교육과 대조되는 교육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보통교육에서도 ‘직업’에 대한 개념은 협의적으로 상정되고 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적인 개념의 ‘직업’은 좀 더 광의적인 차원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직업 생활을 의미하는 ‘직업’ 보다 인간의 삶 혹은 삶의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재개념화 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지위나 노동 행위와 일어나는 공간적인 의미로 규정되는 직업의 개념을 넘어 인간 삶의 전체 과

정과 관련된 활동으로서 ‘직업’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논의가 보통교과 교육에서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학교교육에서 역량의 개념이 주목 받고 있는 점은 ‘직업’에 대한 개념의 확장 가능성을 일면 보여 준다. 본래 직업사회에서 등장한 역량의 개념은 직업수행능력 즉 직무적인 측면을 지칭하였다. 그러나 최근 학교교육에 도입된 역량의 개념은 인간의 ‘전체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인지적, 실천적 기술뿐만 아니라 태도, 감정, 가치, 동기 등과 같은 사회적이며 행동적인 요소를 포함하면서 개인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라고 보고 있다(소경희, 2007). 이러한 역량의 개념은,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의 교육을 학교에서 담당한다고 할 때 간과될 수 없는 부분에 해당되며, 그동안 학교 교육이 교과중심의 ‘무엇을 아는가’에 초점을 두고 실제적인 사회적 삶에 대해 민감하지 못한 측면을 보완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학교교육에 도입된 역량의 개념은 앞서 언급된 ‘직업’을 광의적으로 접근한 개념과 맞닿아 있는 측면이 있다. 즉 직무중심의 역량의 개념이 삶을 살아가는 데 요구되는 일반적인 능력으로 확장되어 학교교육에 도입된 것처럼, 협의적인 개념의 ‘직업’으로서 직무기술이 인간의 삶 혹은 삶의 활동으로서 전체적인 삶의 과정으로서 ‘직업’의 개념으로 접근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교육에 도입된 역량 개념 이외에도, 직업교육 분야에서 자주 언급되는 ‘직업기초능력’ 역시 직업의 개념을 좀 더 넓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기반을 제공한다. 직업기초능력은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 가는데 공통적이며 기본적으로 필요한 능력(정철영 외, 1998)’으로 정의되는데, 이는 직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술, 기능의 개념을 넘어서는 개념을 상정하고 있어 기존의 협의적으로 접근되던 ‘직업’ 개념이 확장될 수 있는 단초를 제시하고 있다. 물론, 아직 역량이나 직업기초능력이 학교교육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 이를 중심으로 학교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현재의 관심과 이를 바탕으로 지속되고 있는 연구 동향을 볼 때 이와 같은 접근은 점차적으로 확산될 것이며, 이는 결국 ‘직업’의 개념에 있어서도 좀 더 확장된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는 점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VI. 요약 및 결론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직업특성화고의 보통교과를 둘러싸고 있는 맥락을 살펴봄으로써 보통교과가 직업특성화고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고, 이 과정을 통해 드러난 직업특성화고에서 보통교과의 위상과 역할이 지니는 의미와 한계가 무엇인지 고찰해 보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연구 문제의 답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에 의거하여, 이 연구는 직업특성화고에서의 보통교과를 둘러싸고 있는 학생, 교사, 학교의 맥락적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에서는 첫 번째 연구문제를 통해 드러난 결과를 토대로 직업특성화고에서 보통교과가 현재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6장 논의 부분에서는 앞서 수행된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현재 직업특성화고에서의 보통교과 교육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첫 번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업특성화고의 보통교과를 둘러싸고 있는 학생, 교사, 학교 맥락에서 각각 두 가지 주요한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다. 직업특성화고 학생이 보이는 특징은, 직업특성화고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진로가 취업 일변도로 흐르지 않았고 오히려 학생들은 다양한 진로를 선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직업특성화고 학생이 보이는 또 다른 특징은, 2000년 중후반 이후 국가의 재정적 지원과 관심과 직업특성화고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중학교 내신 성적 중상위권의 학생들이 직업특성화고로 상당수 진학하였지만, 연구 대상 학교들 대부분에서는 여전히 기초학력이 낮은 학생들이 많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직업특성화고 보통교과 교사들에게서 보이는 특징은, 우선 학교에 대한 비애착적인 태도이다. 즉 직업특성화고에서 보통교과 교사가 설 수 있는 자리가 녹록치 않기 때문에 이 현실로부터 ‘떠나가고 싶어하는’ 교사들과, 아이러니 하지만, 보통교과가 직업특성화고에서 설 자리가 없음으로 인해 도리어 교사의 역할을 최소화시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싶어하는’ 교사들이 존재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또한 직업특성화고 보통교과 교사들은 대부분 모범적인 학창시절을 보낸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학교와

부모님의 기대와 희망에 따라 성실한 학창 시절을 보냈으며, 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특수한 맥락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었다. 보통교과 교사들은 직업특성화고가 아닌 일반고나 특수목적고를 졸업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보통교과 교사들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결국 보통교과 교사들은 교사가 된 이후에야 ‘직업특성화고’라는 특수맥락을 접하게 되고 학생들의 부정적인 학습태도와 분위기에 대한 괴리감과 충격을 경험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직업교육을 수행하는 특수목적의 학교라는 점에서 직업특성화고는 취업률을 유난히 강조하는 특징을 찾아 볼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분위기는 최근 몇 년간 정책적으로 고졸 취업률에 따른 단위 학교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학교관리자들의 취업률에 대한 강조는 전체 학교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직업특성화고의 프로젝트나 교육 프로그램은 직업교육과 관련된 것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학교 운영은 주로 전문교과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특징도 발견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선 직업특성화고의 보통교과는 두 가지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보통교과는 핵심부로부터 밀려나 주변적인 위치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보통교과의 직업특성화고 내에서의 주변적인 위치는, 전문교과 교육에 비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부차적인 교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 학교 운영의 중심부로 침투하는데 있어서 경계가 존재하여 중심부 ‘밖’에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보통교과의 문제가 학교 운영에 있어서 논외로 설정되고 있다는 점을 통해 드러났다. 직업특성화고에서 보통교과의 또 다른 위상은 전문교과로부터의 단절적 위치였다. 보통교과는 전문교과와 연계성 있게 운영되고 있기 보다 ‘보통교과끼리’ 운영되고 있었다. 전문교과와 보통교과 간에 서로 동일한 주제가 다루어지더라도, 양쪽에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을 뿐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 연계를 모색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또한 보통교과는 직업특성화고 외부의 변화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는 마치 ‘외판 섬’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직업특성화고에서 보통교과가 담당하고 있었던 역할은 첫째 수능준비 혹은 장기적 삶을 위한 준비로 드러났다. 앞서 언급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진로가 다양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보통교과는 수능준비의 도구로 여겨지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보통교과가 수능준비 이상의 역할, 요컨대 졸업 후 학생들의 장기적인 삶을 위한 준비를 보통교과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두 번째 보

통교과의 직업특성화고 내에서의 역할은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보조에 해당되었다. 특히 이러한 시각은 직업특성화고에 입학한 학생들의 낮은 학업성취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물론, 보통교과가 학생들의 기초학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도구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를 통해 드러났듯이, 이러한 보조적인 역할이 직업특성화고에서 보통교과가 담당해야 할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간주됨으로써, 전문교과와 비교하였을 때 그와 동등한 위치에서 모종의 역할을 한다기 보다, 기초 혹은 보조 수준 정도로 규정되고 있었다.

이상의 직업특성화고 보통교과의 맥락적인 특징과 위상과 역할에 관한 연구 결과는, 현재 직업특성화고에서 보통교과 교육이 갖는 의미와 한계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6장에서는 이 점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선 보통교과 교육의 의미에 있어서 현재 직업특성화고의 직업교육이 직무훈련 위주의 “산업사회형(강형근, 2004)”이라는 측면은, 전문교과가 학생들의 ‘장기적인 삶’에 대한 고민과 문제를 다루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가 오히려 인간의 보편적인 삶을 다루는 보통교과로 하여금, 직무훈련을 통해 습득되는 기술과 지식 이외의 것들을 다루며 이를 보완할 수 있게 하며 직업특성화고에서 이러한 보통교과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통교과 교육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현재 직업특성화고에서 보통교과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역할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 점과 관련하여 이 연구가 보통교과 교육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첫째, 직업특성화고 보통교과 교사들의 ‘직업특성화고’의 특수맥락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보통교과 교사들이 직업특성화고로 전보 발령 혹은 초임 발령을 받기 이전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수행하는 특수 목적을 지향하는 학교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보통교과 교사들에게 직업특성화고와 관련된 정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루어 보았다. 두 번째로는, 직업특성화고에서의 보통교과 교육과 직업교육 간의 경계를 흐림으로써 양자 사이의 통합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현재 여러 측면에서 통합이 시도되고 있지만, ‘직업을 위한 교육’ 즉 직무훈련을 위한 교육이 여전히 전제되어 있어 포괄적인 수준에서의 통합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임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직업교육에서 ‘직업’에 대한 재개념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이제까지 ‘직업’을 산업분야에서 요

구하는 기술과 직무 혹은 노동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적 의미, 또는 사회적 지위로서 ‘직업’을 상징함으로써 ‘직업’을 보는 렌즈의 시각이 상당히 축소되어 있었다. 그러나 학교교육에서 역량이나 직업기초능력과 같은 개념이 등장하면서 ‘직업’에 대한 시각을 좀 더 인간의 삶과 연관 지어 삶의 활동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간략히 논의하였다.

2. 결론

결론적으로 이 연구가 어떠한 의의를 지니며 동시에 어떠한 제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우선, 선행 연구물들에서는 직업특성화고의 보통교과에 대해 소홀히 다루고 있었던 반면 이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여 직업특성화고에서의 보통교과의 문제를 연구의 핵심 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선행 연구물들이 직업특성화고 행정의 전반적인 측면, 혹은 직업교육과정의 문제를 다루면서 연구 일부분에서만 보통교과의 문제를 간략히 지적하거나, 혹은 보통교과의 문제를 다루더라도 각각적으로 접근하기보다 특정 한두 가지 문제만을 주목하여 단편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직업특성화고의 보통교과를 연구의 핵심적인 주제로 삼고, 현재 직업특성화고 내에서 보통교과 교육이 직면한 상황을 학생, 교사, 학교의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통해 드러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는 기존 연구에서 이 세 가지 측면 중 한가지 혹은 두 가지 측면 정도만을 간략히 언급하고 있는데 반해, 이 연구는 세 가지 측면을 모두 살펴보고 각각의 핵심적인 특징들을 드러내어 복합적인 사항들이 직업특성화고 보통교과가 운영되는 맥락에 작용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러한 배경적인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보통교과의 위상과 역할이 나타내는 특징 역시 분석하여 볼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이 연구는 선행 연구물에서의 ‘보통교과 교육이 문제가 있다는 식’의 단순한 선언적인 문제의식 수준을 넘어, 구체적으로 보통교과가 어떠한 상황에 봉착해 있으며 어떠한 문제가 나타나며 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지에 대해 고찰할 수 있었다.

둘째, 선행연구물들은 직업특성화고 내에서 보통교과가 본래 추구하는 방향 즉 보편적 삶을 위한 준비를 잘 구현해 내고 있는 모습을 포착한 연구가 거의 없다. 물론, 이 연구를 통해 제시한 사례 역시, 연구 참여자 일부만이

이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역시 ‘직업’의 개념을 협의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약하게나마 이들 사례를 통해 직무위주의 직업교육 일변도의 현재 직업특성화고에서, 보통교과의 역할이 수능준비와 기초학업능력 향상의 보조 도구로 간주되는 상황에서도, 보통교과 교육을 통해 보편적인 삶 즉 졸업 후에 학생들이 당면하게 될 사회와 앞으로 이들이 직면하게 될 문제에 대해 고민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연구 방법에 있어서 선행 연구물들의 경우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있으나, 이 연구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현장의 상황을 최대한 담아 내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직업특성화고에서의 보통교과와 관련된 질적 연구가 전혀 수행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교사문화 측면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교사문화보다는 보통교과 자체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한 점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 방법을 통해 현재 직업특성화고에서 보통교과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보통교과의 의미와 한계를 한층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 연구가 현장의 목소리와 현장 상황을 연구자가 직접 살펴보고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한 질적연구 방법과 더불어 여러 문헌자료도 함께 다루고 있어 학계 및 관련 분야에서의 논의 사이의 연결점도 제시하고 있다. 요컨대, 여러 선행 연구물들이 직업특성화고에서 보통교과의 상황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기 보다는 피상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다면, 이 연구는 직업특성화고에서 보통교과의 현 좌표를 살펴볼 수 있게 함으로써 향후 이와 관련된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초석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듯 이 연구가 위에서 전술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먼저, 직업특성화고에서의 보통교과의 위상과 의미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를 오직 ‘교사’로 국한시켰다는 점이다. 이는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과에 대한 교사의 인지가 해당 교과가 가지는 위상과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핵심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는 가정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점은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목소리들 예컨대 학생, 전문교과 담당교사, 행정직원 등 여러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제약이 따른다. 즉 여러 학교 구성원들 간의 시각, 인식, 입장의 교차 속에서 다양한 해석을 이끌어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는

그러한 다양성을 담아내지 못하였다. 물론, 연구자는 이 점을 감안하여 연구 현장에 머물며 10여 명의 학생들과 공식적, 비공식적 면담을 진행하기도 하였고 최종 선정된 9명의 연구 참여자들 이외에도 여러 명의 다른 교사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 그러나 연구의 지속성 유지와 윤리적 절차의 까다로움으로 인해 이 모든 참여자를 연구에 포함시키기에는 제약이 따랐다. 결국,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이 연구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위주로 진행함으로써 직업특성화고의 보통교과를 둘러싸고 있는 겹겹의 다양한 층들을 모두 읽어내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직업특성화고에서 보통교과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다채로운 양상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학생을 포함하여 관리자, 행정가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대한민국 전역의 직업특성화고의 교사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지 못했다는 공간적, 시간적, 물리적 제약을 지니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위험한 측면이 있다. 또한 연구 대상 학교에 있어서도 서울시 다섯 곳의 학교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그 중 한 곳을 제외한 네 곳이 모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상당히 낮은 학교들이었고 나머지만 학교만이 내신 30% 정도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재학하는 직업특성화고에 중에서도 상위권에 해당되는 학교였다. 직업특성화고라고 하더라도 학교마다의 여건은 각기 천차만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역시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가 일반화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학교 여건을 유형화하여 그에 따른 보통교과의 위상과 역할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직업특성화고에서 보통교과의 위상과 의미를 고민하지만, 실제 참여자들의 담당 교과목이 국어(문학), 수학, 과학과목을 포함하여 일부 전문교과들로 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보통교과’라고 하였을 때에는 국가교육과정상에 명시된 사회, 미술, 음악, 체육 등과 같은 다양한 과목이 모두 포함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 중 일부 보통교과들을 위주로 다루고 있어, 직업특성화고의 모든 보통교과의 위상과 역할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이와 더불어, 이 연구는 개별 교과가 지니고 있는 독특성과 고유성에 주목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만약 이 점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다소 다른 방향의 결과들이 도출될 가능성도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개별 교과의 특성을 주목하여 이 점 역시 포괄할 수 있는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이를 보완해 주길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강경중(2002). 농업계 고등학교 보통교과와 전문교과의 통합운영 방안. 한국농업교육학회 학습대회 발표자료집.
- 강영혜 외(2008). 특성화 고등학교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강종표(2010). 초등 실과와 중학교 기술, 가정 교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초등 실과 기술 영역의 내용 선정과 조직에 관한 연구.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3(2), 183-212.
- 강태균 외(2011).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65.
- 강형근(2004). 직업분야 특성화 고등학교의 문제와 발전방안. 교육종합연구, 2, 1-25.
- 교육개혁위원회(1996).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II).
- 교육과학기술부(2009). 초·중등교육과정 총론.
- 교육과학기술부(201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 김두정(1996).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연구, 14(1), 106-125.
- 김복영(1996). 보통교육의 관점에서 본 교육과정. 교육과정연구, 14(1), 142-155.
- 김선태, 유병로(2003). 실업계 고등학교 교수-학습 방법 연구. 대한공업교육학회지, 28(2), 12-45.
- 김용호(1992). 공업계 고등학교의 수업과 그 의미. 교육사회학연구, 3(1), 107-122.
- 김종숙, 곽태열(2010). 전문계 고등학교 진로지도 방안 연구. 경영컨설팅 리뷰, 1(2), 209-229.
- 김진(2010). 전문계고 과학 교사의 교수 적응에 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창호(2000).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주요 쟁점 분석 및 교육관의 정립. 교육과정 연구, 20(3), 211-241.
- 나장함(2012). 교과교육과 수업 연구에서의 질적 접근: 질적 연구 샘플링에

-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교육연구*, 53, 75-104.
- 나현미 외(2011). 2011년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공업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시안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마상진(2004).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교육 가치성향과 조직몰입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동열 외(2009). 전문계 고교생의 기초학습능력 향상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_____ (2012). 특성화고 체제개편 지원 및 현황 조사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윤배(2003). 실업계 고교 과학 수업에서 마인드 맵을 사용하기. *과학교육연구지*, 27, 101-110.
- 박윤희 외(2011). 외국의 중등 직업교육과정 동향 분석. *직업교육연구*, 30(2), 1-33.
- 박창언 외(2010). 교사 및 학교별 특성이 특성화 공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미치는 영향. *공업교육연구*, 29(3), 41-60.
- 백승균 외(2004). 인문학의 전통과 새로운 지평.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 변숙영 외(2008). 전문계고 교수, 학습 방법 우수사례. *한국직업교육학회*, 27(3), 85-107.
- 소경희(2007).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본 '역량(competence)'의 의미와 교육과정적 함의. *교육과정연구*, 25(3), 1-21.
- _____ (2008).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인문교육과 직업교육 통합의 필요성과 가능성 탐색: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26(3), 47-68.
- _____ (2010). 역량의 관점에서 본 대학 교양교육과정: 특징과 과제. 제 6회 역량기반교육 세미나. BK 핵심역량 연구센터.
- 손승남(2011). 인문교양교육의 원형과 변용. 서울: 교육과학사.
- 송창용, 김민정(2009). 주요국의 직업교육 동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안재희(2003). 실업계, 암순이들의 보고서. 서울: 우리 교육.
- 오석영 외(2012). 특성화고 진로이력 분석 201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오승균, 김진수(2006).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모형 개발. *대한공업교육학회지*, 31(2), 83-110.
- 오영재(2006).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사문화에 관한 질적 연구. *교육행정학*

- 연구, 24(1), 69-96.
- 오춘영, 김영애 (2002). 실업계 고등학교의 현실과 수학교육. 논문집, 17, 243-261.
- 유병훈, 권민수(2005).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수학학습 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교과교육연구논집, 2, 65-89.
- 윤형한(2013). 새 정부의 직업교육, 진로교육 관련 국정과제. The HRD Review, 16(2), 120-130.
- 이기운(2007).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들의 일상행위를 통해서 분석한 교사문화의 특성에 대한 질적 연구.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기형(2009). 상업계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한 상업교육 정체성에 관한 연구. 상업교육연구, 23(3), 1-31.
- 이만희(1966). 국제 경쟁력 정책론. 서울: 대광문화사.
- 이무근(2003). 직업교육학원론. 서울: 교육과학사.
- _____(2000). 직업교육과정과 평가. 서울: 교육과학사.
- 이승미(2012). 2009 개정 통합 교육과정의 연계성 분석: 즐거운 생활을 중심으로. 한국초등체육학회지. 18(3), 193-209.
- 이용순 외(2005).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실태 조사: 학교수준에서의 개발과정과 편성을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_____(2006). 실업계고등학교 명칭 변경에 관한 연구. 한국상업교육연구, 14, 53-70.
- 이정환(1980). 기술집약적 산업육성을 위한 공업교육의 방향. 한국교육개발원.
- 이종성(1999). 직업교육훈련 100년의 회고와 전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훈련교육 100주년 기념 심포지엄자료.
- 이종연, 박미제(2004). 상업계 고등학교의 수학교과와 전문교과의 연계성에 관한 고찰. 교육이론과 실천, 13(3), 217-241.
- 이황원(2009). 우리나라 고등학교 유형에 대한 법적 정비방안. 한국교육학연구, 15(3), 191-213.
- 임기홍(2011). 국내 전문계고등학교 특성화 개선방안 및 인력양성방안에 관한 연구. 디지털정책연구, 9(6), 13-25.
- 임언 외(2012). 특성화고 진로이력 분석연구 201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명희 외(2010).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전문계고 교육과정 개선 방

- 향 탐색.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_____ (2013). 고졸 취업 및 후진학 활성화 정책 성과분석 연구. 서울: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 장원섭(2006). 일의 교육학. 서울: 학지사.
- 전병숙 외(2009). 차세대 과학 교과서 활용을 통한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과학 학습 향상. 국제과학영재학회지, 3(2), 137-142.
- 정지선(1998). 평생직업교육의 확립을 위한 2+2 교육과정 연계운영의 발전 방안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1(1), 285-308.
- 정철영 외(1998). 직업기초능력의 영역 분류 및 하위 요소 추출. 직업교육 연구, 17(2), 15-38.
- _____ (2001).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교육의 방향. 직업교육연구, 20(1), 93-115.
- 정태화(1999). 평생학습사회의 고등학교 직업교육 발전 대책 탐색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2, 1-36.
- _____ (2011). 특성화고 체제개편 지원 및 현황 조사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조선기(2002). 공업계 고등학교 수학교과와 전문교과간의 연계성에 관하여: 전자과를 중심으로.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5(1), 135-145.
- 조용환(2008).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_____ (2009). 고등학생의 학업생활과 문화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조정윤(2000). 직업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이론적 탐색.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직업교육훈련사(1999). 직업교육훈련 100년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진영은, 조인진(2001). 교과교육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최규남(2003). 한국직업교육정책. 서울: 민음사.
- 최현철(2012). 인문학과 인문학 교육에 대한 소고. 시민인문학, 23, 183-214.
- 최호승, 이종호(2011). 충남지역 상업계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정책 및 성과에 대한 교사의 인식 연구. 경영교육연구, 76, 353-372.
- 특성화고·종합고·마이스터고 편람(201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특성화고·종합고·마이스터고 편람(201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편경희(2006). 전통적 직업교육의 대안 탐색: 교육철학적 반성과 연구방향

- 을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24, 73-95.
- 황우형, 이은정(2009). 특성화고등학교 수학교육에 관한 현황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수학교육학회지*, 23(2), 197-230.
- Copa, G. H. & Plihal, J.(1996). General education and subject matter education components of the vocational teacher education program. In Hartley, N., K. & Wentling, T., L. (Eds.) *Beyond tradition: preparing the teachers of tomorrow's workforce*. (pp. 91-112). Columbia: University Council for Vocational Education.
- Corrigan, D., & Fensham, P., J.(2002). The roles of chemistry in vocational education. In Gibert, J., K., et al (Eds.), *Chemical education: towards research-based practice*. (pp. 125-141). Netherlands: Kluwer Academic Publishers.
- Denzin, N. (1989). *Research arts*. New Jersey: Prentice-Hall.
- Gaff, G. J.(1983). *General education today*. San Francisco: Jossey-Bass Inc..
- Glesne, G., & Peshkin, A.(1992). *Becoming qualitative researchers: an introduction*. New York: Longman.
- Given, L. (Ed.) (2008). *The Sage encyclopedia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Vol. 1, California: Thousand Oaks.
- Grant, G. (1979). *On competence: a critical analysis of competence-based reforms in higher education*. California: Jossey-Bass Inc..
- Grubb, N., W., et al.(1992). *Assessing the integration of academic and vocational education: methods and questions*. NCRVE Working Paper. California: Jossey-Bass Inc..
- _____(1996). The new vocationalism: what it is, what it could be. *Phi Delta Kapan*. 77(8).
- _____(2006).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ssues for a thematic review*. OECD.
- The Harvard Committee(1955). *General education in a free society: report of the Harvard Committe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Hlebowitsh, P. S.(1993). *Radical curriculum theory reconsidered: a*

- historical approach*.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Kliebard(2004). *The struggle for the American curriculum*. NY: Routledge Falmer.
- Lawton, D.(1980). Common curriculum or core curriculum. *Westminster Studies in Education*, 3, 5-10.
- Merriam, S. B.(1988).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a qualitative approach*. 허미화 역(1994). 질적 사례연구법. 서울: 양서원.
- Patton, M. G.(2002). *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s*. (2nd ed.), Newbury Park, CA: Sage.
- Rojewski, W. J.(2009). A conceptual framework for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Maclean R. & Wilson, D.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education for the changing world of work*. (pp. 19-39). Dordrecht: Springer Netherlands.
- Sherwood, G.(1997). Meta-synthesis: Merging qualitative studies to develop nursing knowledge. *International Journal for Human Caring*, 3(1), 37-42.
- Spradley, J. P.(1980). *Participant observation*. New York: Holt. 신영재 역(2006). 참여관찰법. 서울: 시그마프레스.
- Snyder, J., Bolin, F., Zumwalt, K.(1992). Curriculum implementation. In Jackson, W. P. (Eds.), *Handbook of research on curriculum: A project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pp.402-435).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佐藤学(2000). 「学び」から逃走する子どもたち. 東京 : 岩波書店. 손우정, 김미란 공역(2003). 배움으로부터 도주하는 아이들. 서울: 북코리아.

학교알리미 <http://www.schoolinfo.go.kr>

교육통계서비스 <http://std.kedi.re.kr/index.jsp>

Abstract

The Status and Role of General Subjects in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Park, Nashil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texts surrounding general subjects in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SVHS) and thereby present the status and role of general subjects in such schools. Based on the results derived from my research, I shall consider the meanings and limits of general subject education in SVHS. To achieve this, I have two research questions and employ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First, what are the contexts surrounding general subjects in SVHS?

Second, how are general subjects dealt with in the SVHS curriculum in terms of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the first research question, I can highlight two different features of the contexts of students, teachers, and school management respectively surrounding general subjects in SVHS. First, it is clear that students actually choose various career paths, not necessarily limited to finding a job. In addition, a considerable number of students scoring in the mid-

upper level in the middle school academic record have entered SVHS due to the positive change in public awareness of such schools because of financial support and interest from the government since the mid 2000s. However, this research reveals that many students continue to lack basic academic skills in SVHS, and that they are struggling to improve their academic abilities. With regards teachers, this research shows that general subject teachers, especially, display an ‘anti-affectional attitude’ toward SVHS; they ‘want to leave their school soon’ or ‘just want to take a rest with not so much work.’ Furthermore, they have experienced disparity and shock at their students’ negative learning attitude and learning atmosphere as they themselves spent their school days as ‘exemplary students.’ Lastly, in the context of school management this study discovered that vocational subject teachers are largely in charge of school management due to SVHS focusing on the projects and educational programs related to vocational education.

Next, according to the second research results, general subjects face two major problems in SVHS; one is that they are marginalized from the core of the school management, and the other is that in the process of the school curriculum implementation they are separated as ‘an isolated island’ regardless of correlation with other vocational subjects. Meanwhile, general subjects in SVHS serve as a preparative tool for the college entrance exam or, conversely in some cases, as means of preparing students for long-term living, not only for an initial phase of a career after graduating high school. However, general subjects in SVHS are considered as having a basic or supplementary role in improving students’ academic skills when compared to vocational subjec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re co-exist both educational meanings and limits to general subject education in SVHS. As SVHS concentrate on vocational skill training, concerns regarding the wider life of students have earned less attention. In considering the students’ whole life, general subjects are able to supplement their current vocational education and this means they can play a significant role in SVHS.

However, in spite of this critical role, this study uncovers several problems in terms of its status, and in addressing these issues I suggest three implications for general subject education in SVHS. First,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general subject teachers with relevant information and education regarding the special contexts of SVHS. Second, to integrate general subjects and vocational subjects the boundary of the two should be blurred. Lastly, I discuss that the definition of ‘vocation’ should be reconceptualized.

In conclusion, the meanings and limitation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While previous studies have made little effort to deal with the general subject issues in SVHS,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issues and explores the contexts of students, teachers, and school management with regards general subjects. Through this process, the study presents several features of the statuses and roles of general subjects in SVHS. In this way, this study contributes to a direction for subsequent research since the results reveal the current status of general subject education in SVHS. Second, as this study shows that general subject education can be dealt with meaningfully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of vocational education, while considering the students’ whole life, it offers advice for teaching general subjects appropriately in SVHS. Lastly, although much of the previous literature utilizes the quantitative method to investigate the issues of SVHS, this research uses a qualitative method to collect various voices from schools, data from class observation, and artifacts. From this variety of data collection, this study approaches current multilateral issues on general subject education in SVHS.

However,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due to research subjects’ restrictions and the specialty of research cases. First, this study mainly focuses on teachers, meaning it is difficult to reveal all aspects of general subjects’ features in SVHS. Also, although exploring the statuses and roles of general subjects in SVHS it deals only with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mathematics, and science. Therefore, it is limited to grasping general features of general subjects in SVHS. Therefore, I expect that

follow-up in-depth research should be set out, including other school members, such as students, managers, administrators, and embracing other general subjects as well. In addition, since the findings of this study emerged from only nine teachers and five schools,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the results and they should be interpreted in the context given in this study. I suggest subsequent research can draw another meaningful outcome by categorizing various circumstances of SVHS and thereby exploring the status and role of the general subjects.

Keywords: general subjects in specialized vocational school, the status and role of the general subjects, general subject and vocational subject

Student Number: 2010-23543